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6월 3일(음력 5월 11일) 수요일(주간)

'위대한 평범'의 길 버리고 어디로 가셨나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불교계도 추모 열기… '국민·민족 통합' 화두 온 국민 가슴에 남겨



갈등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세요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영결식이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에서 엄수됐다.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 김영삼 전 대통령 및 유족, 주한외교단 조문사절, 시민, 각계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영결식은 고인의 약력 소개와 조사,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의 종교의식, 고인의 생전 영상 상영, 참석자들의 헌화 분향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시민들의 애도 속에 노제를 지냈다. 박재완 기자

1995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 '서민의 대통령'으로서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며 하심(下心) 했던 한 사람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며 미안해도 말고, 원망도 말고 운명이다"라던 선시(禪詩)와 같은 유서를 남긴 노무현 前 대통령.

영결식이 있기 전까지 사찰 1500여 곳을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는 500만 추모객이 다녀갔다. 장례에는 그를 상징하는 노란색 모자를 쓴 군중들이 노란 풍선과 노란 비행기를 날렸다. 그곳에는 생전에 그를 지지했거나 지지않거나 하는 차별이 없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물결은 단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추모가 아닌 자타불이(自他不二)한 연유에서 오는 공업중생(共業衆生)으로서의 아픔이었다.

29일 장례와 함께 이승에서 잠시 빌려 입었던 그의 '옷'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영결식에서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의 영가축원처럼 '천강을 비추는 달처럼 영원히 남을 님'임에 틀림없다.

#무명 밝히는 반성의 기회

생전에 지중한 불연(佛緣)을 가졌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었기에, 그의 서거에 대한 불교계 인사의 슬픔은 각별했다.

노 前 대통령 서거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애도문 발표와 함께 조계사 등 전국 교구본사에 빈소를 마련하고 지역교구 본사인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에게 봉하마을 상황 등에 각별히 신경 쓸 것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태고종 등 각 종단들 사찰들도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일까지 조석예불시 극락왕생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입재했다.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들은 24일 봉하마을의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같은 날,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과 前 주지 현응 스님 등 해인사 300여 대중도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발인까지 함께 했다.

애도문 발표도 줄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애도문에서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고, 또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노 前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민들 곁을 떠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애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노무현 前 대통령은 평범한 서민들의 삶과 함께하며 국민권익 보호에 헌신했다"며 "민족화합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으로써 민족사에 길이 빛날 치적을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노前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권위주의의 청산, 민주화 등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치적을 남겼다"며 안타까워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정도의 개혁의지를 보여줬던 노무현前 대통령의 삶은 우리 사회에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족역사의 희망이었다"면서 "생의 마지막 길에서 노 前 대통령이 남긴 자취는 민족의 무명(無明)을 밝히는 작은 반성이 될 것"이라 애도했다.

#화해 관용으로 화합할 때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질타하는 불교계 각 단체의 애도 성명도 이어졌다.

수경 스님 등 오체투지 순례단은 '사람 · 생명 · 평화의 길'을 멈추고 봉하마을을 찾아 추모했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는 "탄핵 등 고초에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비보에 통곡의 눈물로 피를 뽑아 애도한다"며 비통해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노 前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의 도덕성을 점검하고, 오만과 독선을 자제해야만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천불교승가회(대표 법안)는 "노무현 前 대통령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 시절부터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 왔다"며 고인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불교계 인사들도 노 前 대통령 서거에 아쉬움을 아끼지 않았다.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前 대통령의 청렴은 의심할 수 없다. 주변사람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노 前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것 같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수사로 노 前 대통령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다소 아쉽고 억울해도 모든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위로했는데 침통하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지관 · 혜총 스님 등은 4월 5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봉행된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 참석 후 노 前 대통령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면담 내용은 노 前 대통령 서거 후 알려졌다.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안부를 묻는 스님들에게 노 前 대통령은 "낙향해서 편하게 농사 짓고 환경보호나 하며 편히 지내려고 했는데 요즘 심기가 괴롭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 평소 많이 읽던 책도 보기 싫을 정도"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혜총 스님은 "부처님은 부모를 해친 자라도 앙갚음하지 말라고 했다. 업(業)의 윤회(輪廻)를 그치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도 그쳐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들의 법문에 노무현 前 대통령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의 노 前 대통령의 발언과 1달여 후 이어진 유서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케 한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남긴 유서에서 대중들은 부처님의 법음을 들었다. 소신공양(燒身供養)하듯 보여준 절연한 각오의 행(行)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사는 것이 각박하다.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조장된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을 일이다.

노 前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네 사는 삶이 마주보고 차를 몰아 달리다 먼저 핸들을 돌리는 쪽이 지는 '치킨런게임(Chicken-Run Game)'과 같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돌아보자.

다수의 군중들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가 남북과 지역 등의 대치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메시지라 믿고 있다.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자.

관련기사 4 · 5 · 27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선지식을 찾아서 ▶14 지성 스님


인터뷰 ▶8 로버트 버스웰

법구경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
말과 행동이 같은 이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9매
용도:복장의식, 상량식,불사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기 2553(2009)년도 본말사주지연수 일정 변경 안내문

교육원에서는 불기 2553(2009)년도 본말사주지연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주지스님들께서는 입교 일정에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종단의 중요 사안인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개최하기로 한 <본말사주지결의대회>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현 계획	변경 계획
날 짜	가권역 : 6월 2일 ~ 4일 나권역 : 6월 11일 ~ 13일 다권역 : 6월 17일 ~ 19일 라권역 : 6월 24일 ~ 26일 마권역 : 7월 1일 ~ 3일 바권역 : 7월 13일 ~ 15일	통합권역 : **7월 1일(수)~2일(목)** (음)5월 9일~10일
기 간	2박 3일	1박 2일
권 역	여섯 권역	통합 권역
장 소	전통불교문화원	제15교구본사 통도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법장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구성원은 불신임, 총장은 자신감?

남북관계가 심상찮다. 달까지 바뀌어 6월이 되니 한국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전쟁 발발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수하에서는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서 먹겠다"는 장담이 있었다. 전쟁이 발발해서 열세에 몰리며 대구까지 물러났다 대전으로 잠시 올라왔던 정부였지만 큰소리는 여전했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관공서의 국가문서는 물론 한국은행 지하의 은행권까지도 방치한 채 퇴각했던 정부의 변이 이랬다.

5월 25일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의 이사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이사회에 상정 · 처리된 11개 안건 중에는 2008회계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학진흥기금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일산불교병원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다.

동국대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108프로젝트와 시설투자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보완할 것과 의료원 수입 정체 및 감소와 일산병원 차입금 상환 등을 지적했다.

내부 감사도 "구조조정 및 수입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8프로젝트는 오영교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펼쳐 온 야심찬 계획이다. 그가 펼쳐온 시설투자사업 역시 일류대학을 만들겠다던 비전의 일환이었다. 무엇보다 수백억 부채를 안고 있는 의료원은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의료원 손실은 자금 유출이 없어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 재가이사가 "중앙대가 400억 부채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있다"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자 오 총장이 반발했다.

오영교 총장은 "경주병원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등 이 추세라면 의료원은 안정된다"고 자신했다. 이어 오 총장은 "동국대는 계속 전진하고 있다. 일류대로 갈 수 있다. 이자상환에 문제는 없다"고 장담했다.

현재 동국대 교수회는 오영교 총장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신임 받지 못한 리더의 자신감.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조계종 도의 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은 5월 25일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행사는 1부 상단불공과 2부 법회 순으로 봉행됐다. 조동섭 기자

출재가 인적자원 취약 '위기'

조계종 총무원 '불기2552년도 종단 통계자료집' 발간

2008년 12월 31일 현재 조계종 전체 사찰은 2501곳, 승려수는 1만 3860명이다. 사찰수는 전년대비 57곳(2.3%) 증가, 최근 5년간 203곳(8.8%)이 증가했다. 승려수는 전년대비 284명(2.1%) 증가, 최근 5년간 1186명(9.3%) 증가했다.

이같은 통계는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5월 27일 발간한 <불기 2552(2008)년도 종단 통계자료집>(이하 통계자료집)에서 발표된 것.

종단 주요현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종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집에는 사찰, 승려, 승려교육, 신도교육 등 9개 부문별 통계가 수록됐다.

통계자료집에 수록된 과거 대비 사찰과 승려수의 소폭 증가 이면에는 매년 되풀이 되는 조계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특히 통계자료집은 개신교나 가톨릭 통계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열세를 넘어 조계종 인프라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

당장 승려수 증가와는 별도로 기초교육 대상자가 줄고 있는 것은 위기다. 남행자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폭은 두자리수(-26.9%)로 승가재원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반증한다.

재가자로 구성된 포교사도 문제다. 포교사는 전년대비 8.2 % 증가했고, 팀별 활동도 15.7% 늘어났다.

포교사의 연령별 구성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체 포교사의 반수 이상이 50대 포교사로 40~60대에 걸쳐 분포해 젊은 인력의 수급이 시급해 보인다. 포교 활동분야도 편중됐다. 포교분야별 활동 포교사 수는 군부대, 사찰문화, 지역봉사, 염불봉사 순으로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포교를 비롯해 교육포교 활동자가 취약했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대한 종단 인프라의 취약함은 청소년 불자 단체인 파라미타 증감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파라미타 전체 회원 수는 1만 7535명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쳐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재가신도도 위기는 마찬가지. 전문교육기관이 전년 대비 5.6%로 소폭 증가한데 비해 수료자는 -8.1% 감소했다.

반면에 사설사암이 줄고(-4.4%) 공찰이 늘어난(13.6%) 것은 5월 1일 입법예고된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귀속에 관한 령(제정안)'과 발맞춰 종단적 분위기가 '무소유'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교 관련 문화재가 2007년 1951건에서 2192건으로 늘어난 것은 문화재와 관련한 종단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계종 사회복지 시설이 전년대비 9.5% 늘고 종사자수가 25.4% 늘어난 것도 조계종의 사회참여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된다.

조계종은 불교계 대표 종단의 하나다. 때문에 통계자료집이 보여준 출재가를 막론한 인적자원의 취약점은 불교계의 어두운 미래를 의심케 한다. 통계자료집 발간 때마다 드러난 조계종의 해묵은 과제가 풀리길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새 이사장 선출 '무산'

영담 스님 "6월 선출하도록 하겠다"

동국대 새 이사장 선출이 무산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5월 25일 제244회 이사회의를 열고 후임 이사장 선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선출하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의에는 이사 13인 중 정념 · 혜림 스님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결산 승인, 기채 승인, 교원 인사 등 11개 안건이 상정됐다. 다른 안건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됐으나 이사장 선출건 만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다.

두시간 여 동안 신규 교원 임용 등 8개 안건을 처리한 이사회는 이사장 선출 안건 상정에 앞서 스님이사들 간에 협의가 있었으나 차기 이월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영배 스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누구라도 이사장에 선출되면 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이번에는) 꼭 이사장을 선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사장 선출이 미뤄지자 동문회장인 전순표 이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또 연기되면 동문들이 어찌 볼지 참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규철 이사도 "이사장을 (스님이사들이) 합의 후 추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스님이사들이 하나돼서 동국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종단 상황과 맞물려서 안 되고 있지만 곧 될 것"이라며 "6월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가 상정 · 처리한 안건은 △교원 인사에 관한 건 △2008회계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사학진흥기금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일산불교병원 기채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교육용기본재산 매입 승인에 관한 사항 △경주병원 고가장비 시설대여(리스) 승인에 관한 사항 △의생명과학캠퍼스 조성관련 산학협력관 및 한의학과 신축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동섭 기자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진대회 열려

조계종 포교원 7월 11일 개최 예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어린이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2007년 시작된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인만큼 이번 전진대회는 포교원이 그동안 야심차게 진행해온 사업 결과물과 성과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진대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2000여 어린이와 지도자가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 연꽃문화제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축제한마당, 문화공연, 전진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수계 · 신도증을 발급한다. 종단에서 처음 발급하는 어린이청소년 신도증은 재적 사찰이 있는 어린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지난 4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성인용 새 신도증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진대회 본행사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총람 봉정 △포교 우수 사찰 및 지도자 표창 △수계의식 △포교 중심도량 시행 사찰 선포 △중심도량 현판 전달식 등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에 앞서 축제 한마당에서는 불교체험마당, 전래놀이, 교구교재 전시 및 주요사업소개, 불교중앙박물관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다. (02)2011-1892 이상언 기자

다문화 가정지원 전문 봉사자 양성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부와 함께 11일부터 교육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다문화가정지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양성교육은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교사, 간호사, 보육교사, 상담사, 미술치료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다문화가정지원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여성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강좌는 △조희금 교수(대구대 가정복지학과)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나라별 문화 특성 이해' △김현덕 사무팀장(마하 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의 '다문화가정지원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할 법률과 지원 서비스' △이정호 대표((사)아동청소년 마음을 키우는 사람들)의 '표현예술심리치료기법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의 실제' 등을 진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 정서적 지원과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의 일부분인 만큼 한국사회의 조화와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오영교 동대 총장 퇴진운동

동국대 교수회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동국대 교수회의 총장 불신이 퇴진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5월 2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2009학년도 교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수들은 결의문에서 학교측에 △학제개편과 입학정원관리시스템 백지화 △연구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 △인사평가시스템 철회 △교수특별채용기준(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한편, 오영교 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유덕기 회장은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장 퇴진운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 동국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신동욱)도 오영교 총장 등 학교당국을 성토하는 행동에 나섰다.

신동욱 총학생회장과 이은지 부총학생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비롯해 교내 곳곳에는 학교 측의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성토하는 대자보가 줄 잇고 있다. 조동섭 기자

저자거리 열린선원 개원 4주년 기념특별법회

(다음카페 열린선원, www.opentemple.or.kr)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도량 열린선원은 저자거리 재래시장인 역촌중앙시장에 2005년 6월 5일 개원법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열린불교아카데미,재래시장활성화 기원법회,명절차례시연법회,이웃종교 이해를 위한 시간, 거리포교,템플스테이,가족법회,중앙대불교학생 동문가족법회 등 활동을 하며 3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개원 4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한 기념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동참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 사 명 : **저자거리 열린선원 개원4주년 기념특별법회**
▮날 짜 : **2009년 6월 6일(토) 오후 3시 ~ 오후 6시**(저녁 소찬공양)
▮행사내용
제 1부 특별강연(오후 3시 ~ 4시 30분)
· 마성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존재의 세 가지 성질=3법인)
제 2부 기념법회(오후 4시 30분 ~ 6시)
· 격려법어 – 월운큰스님(태고종 사정원장)
· 축하공연 – 앨리스블루 강 혜윤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선물(전통 된장,고추장)을 드립니다.
※열린선원의 윤달불사는 서울대 정문 안에 있는 600년 전 무학대사 창건사찰인 전통사찰인 관악산 자운암과 연대하여 대승보살계 수계법회(6월 28일 일요일 오전10시30분:자운암 금강계단)로 봉행할 예정입니다.
▮문 의 : 종무소 (02-386-4755, 4720)



한국불교태고종열린선원장 **법현**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남북불교계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뜻 모아

5월 19~23일 평양에서 남·북대표단 만나 공동합의서 작성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악화일로인 가운데, 남북불교계가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으로 구성된 남측대표단은 5월 19~23일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측대표단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순영 정보실장 등 6인이다.

이들은 방북 후 조불련 심상진 위원장과 리해용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조불련 전국신도회 리현숙 부회장 등을 만나 반환대상 문화재에 대한 반환 방안과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문화재반환운동의 민족적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남북불교계는 공동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미국 보스턴 박물관이 소장한 귀중한 민족문화재인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남북불교계는 '금은제라마탑형사리기'와 '<지장경>금니사경' 등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남북불교계가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위). 아래는 남측 대표단.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 환수'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남북불교계는 '금은제라마탑형사리기'와 '<지장경>금니사경' 등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궤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핸더슨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으로 구성된 남측대표단은 5월 19~23일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측대표단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순영 정보실장 등 6인이다.

이들은 방북 후 조불련 심상진 위원장과 리해용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조불련 전국신도회 리현숙 부회장 등을 만나 반환대상 문화재에 대한 반환 방안과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문화재반환운동의 민족적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남북불교계는 공동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미국 보스턴 박물관이 소장한 귀중한 민족문화재인 '금은제라마탑형사리

공개사과 촉구

찬불가 물의 의원 사과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무안 · 신안)이 5월 14일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찬송가를 불러 지역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무안 봉불사 주지 지오 스님과 신도 70여명이 5월 17일 봉불사에서 종교편향 결의대회를 갖고 이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지오 스님 등은 결의문을 통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된 제1회 황토골 은빛교실 연합축제 한마당에서 이 의원이 특정종교 찬송가를 공개적으로 부른 것은 종교편향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역 20개 종교계 노인시설인 연합행사에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라는 내용의 찬송가 '사명'을 부른 이윤석 의원은 26일 봉불사를 찾아 지역 스님들에게 "종교편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초 27일 사과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처벌규정이 없는 법제도로 인해 공직자 종교편향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불자들의 끊임없는 제보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태국 왕실 기증 불상, 불국사에 봉안

불교국가 태국 왕실이 2007년 11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조성한 불상이 경주 불국사에 봉안됐다. 불국사(주지 성타)는 지난 1월 태국 왕실이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 가입된 19개국에 기증한 불상을 5월 24일 불국사 부설 경주불교문화회관(관장 종성)에서 성타 스님, 종성 스님, 프라담바라자라야 스님과 WFB 판와나메디 총재, WFB 한국본부 임선교 명예회장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방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중단"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사장단 성명서 발표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사장단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5월 15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방송(BBS)과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 사장단은 5월 20일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방송 사장단은 성명서에서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상파 방송매체의 균형발전을 무너뜨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인 지상파 종교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단은 "이번 법률안 입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추악한 음모"라며 "법안개정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청, 용주사 인근 구역 합리적 조정

화성 용주사 인근 융 · 건릉을 비롯해 문화재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5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정됐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8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35만9294㎡다. 이 중 49%인 9490만29㎡가 사유지"라며 "올해 안으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2009년 적정성 검토 대상에는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국보 제34호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 3건이 포함됐다.

한편,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후 매 10년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등을 평가 · 고려해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동섭 기자

반상회보에 '삼국유사' 있다

군위군 '삼국유사' 연재로 관심 환기

경북 군위군이 반상회보를 통해 <삼국유사>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군위군(군수 박영언)은 반상회보를 통해 특집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깊이 알기'를 6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군내 반상회보를 통해 연재하기로 했다.

군위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삼국유사>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재는 '군위와 <삼국유사>의 첫 만남'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은 어떤 분인가' '<삼국유사> 재미있게 보기'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게재될 예정이다.

박영언 군위군수는 "이번 특집연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삼국유사>와 그 집필지인 군위군에 대한 군민들의 자부심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위군은 4월 29일 군위군청에서 삼국유사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위원 1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054)380-6061

노덕현 기자



4월 29일 창립된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채호순씨 대상

탄허 휘호대회서

서도인들의 축제 '제5회 탄허 대종사 선서함양 전국 휘호대회'에서 채호순(한글 부문)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조계종 4교구 본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오대산 불교문화 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5월 17일 월정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휘호대회에서 우수상에는 한문의 박상철·육난주·이문옥·이상실씨, 한글 박순금씨, 문인화 오승희·우성순씨가, 특선에는 모두 75명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서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개최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현성)는 5월17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현성 스님, 혜묵 스님 등 1200여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2회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0개 팀이 경쟁한 이날 대회에서 장기타령으로 대상을 차지한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고 간지연(2학년) 학생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상장과 상금 및 트로피를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봉산탈춤을 공연한 세명컴퓨터고 탈바라기 팀에게 돌아갔으며,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부채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석관중학교의 사물놀이, 인기상은 은곡공고 우도판굿이 차지했다. 청담정보통신고 학생들의 전통국악을 접목한 비보이는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특별상을 차지했다.

한편,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조영숙 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상언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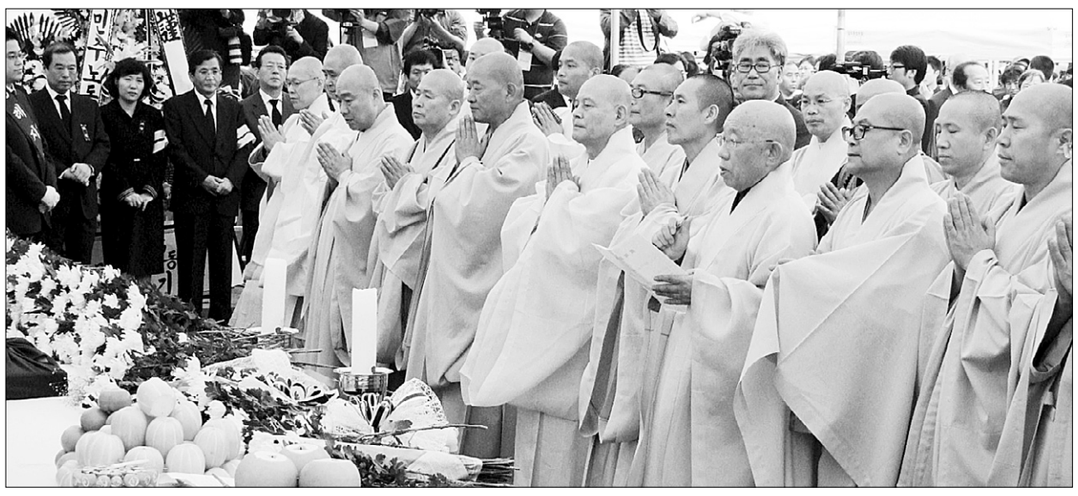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노 무 현 前 대통령 서 거

현대불교 제 734 호
2009년 6월 3일 수요일
불기 2553년



5월 24일 봉하마을에 마련된 노 前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

전국 사찰마다 '극락왕생' 기원

지관 스님 등 조문단 권양숙 여사 위로

"불심 가득했던 그 길, 이어 가겠습니다."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한 불교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500만 명 이상이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교계는 하안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재가를 막론한 모든 사부대중이 불자 대통령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주요 종단, 애도의 뜻 전달

조계종은 5월 23일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국 25개 교구 본사에 분향소를 설치한 데 이어, 24일부터 분향소를 100여 곳으로 늘려 추모객을 맞이했다.

서거 다음날인 2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영남 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 총무원 부·국장스님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계종 조문단이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 권양숙 여사를 위로했다. 지관 스님과 권 여사와의 면담은 서거 후 외부 인사로는 처음이다.

지관 스님은 "노 前 대통령은 불교계에 고마운 분"이라며 "비통하고 힘들더라도 꿋꿋이 살아 주길 바란다"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단과 함께 합천 해인사 스님 300여 명이 봉하마을 분향소에서 예불을 올렸으며, 이후 동화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등 영남지역 교구본사스님들이 돌아가며 장례 축원을 계속 진행했다. 특히 25일 엄수된 입관식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250여 스님들이 참석해 불교식으로 의식을 집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등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 12명도 5월 24일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태고종은 석왕사와 봉서사 등 전국 주요사찰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이 25일 서울 종로 역사박물관 분향소를, 28일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이에 앞서 23일부터 49일 동안 태고종 전국사찰에서 고인의 명복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조석기도예불을 봉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진각종도 각 지역 심인당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27일 영남3개교구청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조문하는 등 애도를 표했다.

#전국 사찰 100여 분향소 불자들 추모 발길 이어져

주요 종단 지도자와 스님들의 추모행렬과 더불어 전국 사찰 분향소에는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계사 분향소에는 서거 당일 1만 명, 이튿날 5만 명 등 조문인파가 몰리며 영결식까지 약 15만 명이 참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원장 원행) 할머니들이 찾아 평소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노 前 대통령의 서거에 안타까움을 토했다.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들의 원찰인 강남 봉은사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분향소를 찾았으며, 도선사에도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영결식 당일인 29일 오전 10시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한 스님 300여 명이 참석한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초재가 열렸다. 이어 4시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영구 행렬이 돌아온 봉하마을 정토원을 비롯한 전국사찰 분향소에서도 49재 초재가 거행됐다.

#정치적 고향 광주지역에는 추모 열기가

노 前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주지역은 더욱 큰 비통함에 추모열기가 더했다. 광주지역은 노 前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경선에서 이른바 '광주의 선택'으로 극적인 역전을 해, 결국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한 이른바 '정치적 고향'.

광주전남불교계는 광주지역 원각사, 문빈정사, 원효사, 무각사와 전남지역 송광사, 백양사, 향일암 등 20여개의 사찰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역불자들의 조문을 받았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와 광주전남불교도협의회(공동대표 영조)는 26일 문빈정사 대웅전에서 노 前 대통령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을 초청, 추모법회도 봉행했다.

지선 스님은 "광주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잘한 것 같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말을 전했다.

28일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 주최로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에서 추모법회가 열려 광주시 추모행사까지 참가행렬이 이어졌다.

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5월 25일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 제목의 추모글을 통해 노 前 대통령의 군생활, 인권변호사 활동, 수감당시 모습, 요가와 명상 장면 등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일상생활 사진을 공개했다.

특별취재팀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라"

청화 스님 등 100인 시국선언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각계 인사 100인은 5월 28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현 시국에 대한 정부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현 정부는 노 前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검찰이 권위주의적 통제를 자행하는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행해왔다"며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범죄구성이 완료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은 이를 확대해 결국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前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현 정부가 분열의 통치를 마감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전제로 국정쇄신의 청사진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거부터 영결식까지 이모저모

● 불교계 일정 취소, 추모 행사로 대신

불교계는 노 前 대통령의 서거에 각종 행사를 취소하며 추모분위기를 조성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5월 27~28일 열린 군승수련회에 체육·수련 일정을 취소하고, 입재식 전 110여 군승 전원이 불국사 분향소에 조문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도 6월 2일로 예정됐던 본말사주지연수를 7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합 개최하기로 했고, 조계종 종무원 원우회(회장 김한일)도 29일로 예정됐던 종무원체육대회를 연기하고 분향소 설치 및 참배 일정에 나섰다.

● 지관 스님, 조계사서 만장 작성

"마음과 육신이 본래 공하고 오고 감이 없으니, 극락이건 부처님 품이건 여유롭게 거니시기를(心體本空寂 無來亦無去 天堂佛刹 逍遙自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추모 만장을 직접 작성했다. 이날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영결식과 노제에 사용될 2000여 만장이 시민들의 참여로 제작됐다.

● 정부, 안전 이유로 PVC 만장 요청

영결식과 노제에 쓰인 2000여 만장이 PVC에 매달렸다. 정부는 안전상 이유로 대나무 대신 PVC를 쓸 것과 서울광장에 만장을 고정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미등 스님(청매의례문화연구원 원장)은 "만장은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로 다비식 후 태우게 돼 있다"라며 "(대나무가 아닌) PVC에 만장을 매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범주 스님, 노 前 대통령 추모 퍼포먼스

선화가 범주 스님(상주 달마선원장)이 서울 조계사에서 고인을 추도하는 '달마 퍼포먼스'를 펼쳤다. 스님은 5월 27일 조계사 분향소 앞에서 1m 붓으로 가로 5m, 세로 7m 크기의 대형 달마도를 그렸다. 범주 스님은 달마도를 그린 뒤 '근조(謹弔) 노무현 대통령'과 '방하착시해탈(放下着是解脫)' 휘호로 마무리했다.

● 지관 스님 등 장의위원 선임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5월 27일 정재계와 종교·시민사회를 막라한 국민장 장의위원회 1383명을 발표했다.

불교계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고문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정산 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前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 前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 등 15명이 장의위원 명단에 올랐다.

한편, 개신교계는 김준곤(성시화운동 총재), 박형규, 옥한흠(사랑의교회 원로),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등 25명이 장의위원에 선임됐다.

영결식 불교의식 명진 스님이 집전

5월 29일 노무현 前 대통령 영결식 불교의식은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집전했다. 스님의 집전에는 노 前 대통령 퇴임 직전 봉은사에서 108배를 하는 등 신행활동을 이어간 권양숙 여사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 스님은 영결식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여, 이제 당신의 육신은 지(地)·수(水)·화(火)·풍(風) 사대(四大)로 돌아간다"며 간추린 '무상계' 법문을 했다.

이어 스님은 "육신을 움직이던 주인공은 어느 곳에 무엇으로 계십니까?"하고 물은 뒤, "불가의 소신공양(燒身供養) 같은 행(行)을 보여준 노 前 대통령의 뜻은 천강을 비추는 달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애도했다.

한편, 수원 연화장에서는 화장(火葬)이 진행되는 동안 화성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2교구와 한마음선원, 봉녕사 학인 등 100여 스님이 독경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림)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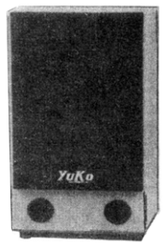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제 734 호 현대불교
2009년 6월 3일 수요일
불기 2553년

노무현 前 대통령의 불교인연

어머니 염불 듣고 절 마당서 놀아

5월 23일 탈(脫) 권위주의와 지역 균등 발전 등의 가치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며 국민의 편에 섰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공인으로서 스스로를 '무종교인'이라 밝혔지만 노 前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 맺으며 살아왔다.

특히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그의 유언은 불교 존재론의 핵심인 생사일여(生死一如)사상을 담고있다.

노 前 대통령의 일생은 생을 마치는 순간 보여준 그의 생사관이 암시하듯, 불교와 뗄 수 없는 인연의 수레바퀴를 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집에다 부처님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종을 흔들면서 독송을 하셨는데,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곤 했다. 어렸을 때 뒷산 암자인 화일사(현 정토원)에서 놀았다"며 "불교에 대해 아주 친숙하다"고 했다.

고향 형님인 봉화 정토원 선진규 원장(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과 스님이 된 고향 친구, 평생 도반 권양숙 여사 등 그는 항상 불자들 속에서 살아왔다.

가난한 농가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명석한 두뇌로 범상치 않았지만 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장학생으로 부산상고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김해 장유암에 머문 그에게 불교는 더 이상 낯선 존재일 수 없었다.

스무살 때 〈반야심경 해의(解義)〉를 읽는 등 젊은 시절에는 불교 서적도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학적 관심이 남달라 〈불교학개론〉 〈세계의 종교〉등 개론서들을 독파했다. 집에는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의 세계〉 등의 경전을 소장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관심은 깊었다.

불교의 '관용과 자비'의 정신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라 믿었던 그는 1999년 새천년민주당 불자의원 모임인 '연등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자'란 사실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2001년 대선 기간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당시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사찰을 방문하며 원로·대덕스님들과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역대 후보 중 처음으로 북한산-천성산-금정산 관통 백지화 등의 '불교계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불교계의 민심을 파고들었다. 또 불심 깊은 권양숙 여사가 불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2002년 12월 19일, 그는 1201만4277표(48.9%)라는 역대 대선 사상 최다 득표로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북한산관통도 백지화'를 철회해 불교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003년 12월 22일 해인사를 찾아 법전 스님을 예방하며 참회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해인사에 우리나라 최고(最古) 목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비로전을 건립하는데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했다. 퇴임 전인 2007년 11월 24일 열린 낙성법회 때에는 부인 권여사와 함께 직접 해인사를 찾기도 했다.

또 양양 낙산사가 화마로 손실됐던 2005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해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훼손됐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했다"며 "국가발전의 밑거름은 화합과 상생의 불교정신이다. 불교가 더욱 융성해서 국민들 가슴속에 더 많이 퍼지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노 前 대통령의 옆에는 언제나 권양숙 여사가 있었다. 법전 스님으로부터 '대덕화(大德華)'라는 법명을 받은 권 여사는 파란만장한 노 前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지혜와 자비를 닦는 불자의 원력으로 내조했다.

권양숙 여사는 2008년 2월 22일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를 방문해 새벽예불에 참석하고 108배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권 여사는 "청와대 내에 모셔져 있는 불상의 불전함을 5년 만에 개봉했다"며 280여 만원의 시주금을 명진 스님에게 전달했다. 권 여사는 대웅전에 모인 신도들에게 "지난 1989년부터 봉은사를 조용히 찾았었다"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에 봉은사를 와 보고 싶었다"고 방문 이유를 밝히고 건호씨와 정연씨 등 두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인등기도비 5년치를 납부해 봉은사는 사실상 노 前 대통령 가족의 원찰이 됐다.



합장하고 있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노 前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불교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4월 5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총무원 관계자 20여 명이 인근 봉화산 정토원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봉하마을을 찾자 노 前 대통령은 "큰스님들께서 이 먼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크게 반겼다. 또 스님들과 종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박연차 게이트' 압박 수사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기도 했다.

5월 29일 노무현 前 대통령 유해는 생의 마지막 발길을 옮겼던 봉화산 정토원에 부모님의 위패와 함께 임시 안치됐다.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을 대변해 온 '서민 대통령'의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마치고 부처님 도량에서 마침내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노무현 前 대통령 유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선진규 원장, 선배이자 후원자로 곁 지켜

정토원에 부모님과 위패 나란히

서거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기 직전, 부모님 위패가 모셔진 인근 사찰 정토원(원장 선진규)에 들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정토원은 노 前 대통령의 사저가 내려다 보이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사자바위 아래 위치한 절로, 노 前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바위와는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사찰은 1920년대 초 작은 암자로 지어져 자암사, 화일사, 봉화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다 1983년 선진규(75·前 전국신도회 회장) 법사가 정토원으로 개명해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다.

노 前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귀향환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한 선진규 정토원 원장은 노 前 대통령의 초·중학교 선배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든든한 의지처가 돼줄 만큼 각별했다.

선 원장은 "정토원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아이였을 때부터 불공을 드리러 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올라와 놀던 놀이터 같은 곳"이라며 노 前 대통령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회상했다.



봉화 정토원 선진규 원장.

선 원장은 노 前 대통령과 같은 고향 사람이면서 진영 대창초등학교와 진영중학교 선배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걸어왔다.

정토원의 한 스님(87)은 "(노 前 대통령) 초등학생 시절,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총학생회장까지 맡았던 선 원장을 보면서 '나도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얘기를 하며 함께 웃곤 했다"고 말했다.

노 前 대통령에게 선 원장이 어린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세월이 흐른 후 선 원장은 노 前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가 됐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를 도왔고, 귀향 전에는 '귀향환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도맡았다.

선 원장이 지난 2월 〈부처님의 3대 선언〉이란 법보시용 책을 준비하면서 초고를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노 前 대통령이었다. 이 책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불교 수행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자연은 나, 나는 자연'이라는 불이법(不二法)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당시 노 前 대통령은 이 책을 보고 "책의 내용이 너무 알차고 배울 게 많다"며 "앞으로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인용 해야겠다"며 책 한 권을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몇 달 후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말로 그 분의 유서에 투영됐다"며 "여기에 노 前 대통령의 위패를 모시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5월 29일 영결식 거행 후 화장된 노 前 대통령의 유해는 49재가 끝날 때까지 정토원에 안치되고, 비석은 부도탑 형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2005년 8월 30일 권양숙 여사와 함께 합천 해인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위).
2007년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법회에 참석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내외(아래).

국가와 민족을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기도대법회

천안 구룡사 천불천탑 세계불교수도원 오전 10시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법화경 사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경전으로 알려져 왔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의지로 법화경을 사경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전세계에 몰아닥친 경제난의 여파로 우리나라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화합된 마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대표서예작가들과 함께하는 서화문화축전과 법화행자들의 노래경연대회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스러운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국가와 민족의 화합을 기원합시다.

천안 구룡사 세계불교수도원
6월 13일 오전10시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
⇒ 천안역 주차장 출발(오전 8시~ 정오12시)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 일시 : 불기 2553년 6월 13일 오전10시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전화 041-552-9666~8)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제기역 1번출구 출발 02-928-1331, 1340

6월 13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8	수원 박찬희	010-6304-3459
제주 불사리탑	064-783-8801	분당 명심행	011-9248-3844
부산 법화정사	051-623-3595	울산 윤태숙	016-548-0753
대구 박기섭	053-751-2366	강릉 민영희	019-287-8855
대전 윤서빈	010-4000-8660	구미 이재금	011-825-8558
강원도연화정사	033-671-7590	원주 강옥녀	033-743-8845
청주 김명복	043-231-5136	안동 오노미	016-309-3539
광주 은미사	062-223-4752	상주 이보리심	054-535-2952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전주 송복실	010-6808-2807
진주 장동주	010-6799-8584	마산 이명희	016-9234-8850
진주 박인순	011-9312-5712	인천 정영섭	010-5295-1068
진해 김기연	010-9570-3475		

■ 일시 : 불기 2553년 6월 13일 오전10시 기도입재, 14일 오전 6시 회향 ■ 문의 : 서울 : 02-928-1331 / 천안 : 041-552-9666~8

해 외 WORLD

아시아 국가 사찰방문객 수 급증

심리적 불안 불교 신행으로 해소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불교 신행으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싱가포르 발 로이터 통신은 최근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사찰과 교회를 찾는 아시아 국가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국가에서는 불교센터에서 명상 수업을 듣거나 사찰을 방문, 또는 점성술에 의지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1.4분기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했다. 싱가포르 아미타파 불교도센터는 "센터의 명상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20% 가량 늘었다"며 "사람들이 경제불황으로 평화와 안정을 얻는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10.24%를 기록한 대만에서도 타이베이의 유명 사찰인 싱톈궁(行天宮)의 방문객이 증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곳 대만 사찰에는 매일 약 200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대나무를 뽑아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는 중국 전통 점성술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도 4년간의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에 치명타를 입어 지난해 보다 사원을 찾은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

방콕 한 사원의 관계자는 "사람들이 일자리, 복권 당첨, 애정운세 등 갖가지 종류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원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불교 10년 새 10배 증가… 네덜란드서 3위

맹목적 수용 비판 목소리도 나와

네덜란드에서 불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의 종교로 자리잡아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영자신문 NIS News Bulletin에 따르면 "불자 증가 추세가 이슬람교에 월등히 앞섰다"고 보도했다.

NIS는 인구가 1600만 명인 네덜란드에서 25만 명의 백인이 불교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순수 네덜란드인 4000명과 아시아 이민자들 중 불자를 합해 1만6000명이었던 1998년에 비하면 놀랄만한 양적 팽창이다.

불교의 입지가 굳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불교의 맹목적 수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신문 더 폭스크란트(De Volkskrant)는 "이슬람교 확산이 네덜란드 민족주의 영화제작자인 기어트 윌더스(Geert Wilders)에 의해 위협적이며 폭력과 타협한 집단주의로 여겨지는 동안 불교는 개인적인 믿음과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로 비춰진다"며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긍정적 이미지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틸버그 철학대학의 푸르투이(Poorthui)와 잘리밍(Salemink) 박사는 최근 발간한 <Lotus in the Low Countries>라는 책에서 불교의 이면에 대해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나은 기자

스트레스 해소에 불교가 최고!

세계적 모델 케이트 모스 불교에 심취

영국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인 케이트 모스(35)가 마음의 휴식을 위해 불교에 귀의했다.

영국의 종합연예뉴스 전문 사이트 엔터테인먼트와이즈(Entertainmentwise)는 "케이트 모스는 그녀의 아파트에 청동불상과 종교 서적을 구입해 모셔뒀다"고 게재했다.

사이트는 "그녀는 샌달우드향이 나는 향을 올리고 친구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케이트의 한 지인은 "케이트는 명상과 불교를 배움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기를 원하며 이러한 활동이 곧 차분하게 하는 방법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이즈는 "케이트는 올랜도 블룸, 골디혼 등 불교에 심취한 유명인사들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케이트 모스.

임종간호 승·속 함께 해야 '효과'

배출된 인원 실무 투입 드물어… 활동 공간 확보 시급

5월 21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존엄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을 놓고 가톨릭과 개신교계는 신속히 입장을 표명했지만 불교계는 공식입장은 커녕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마저 빚는 양상이라 입장 마련이 시급하다.

때문에 죽음의 시기를 저울질하기보다는 임종간호(호스피스)를 통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교에서는 임종 시 마음가짐에 따라 내세(來世)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들은 평온한 죽음을 맞기 위해 임종간호 서비스를 찾는다.

하지만 정작 불자들은 임종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봉사자지원 서비스를 이웃종교계로부터 도움 받는 경우가 많다.

불교계 임종간호 전문가인 강선희 보살은 "10년간 임종간호 활동을 해오면서 불교계 임종간호 교육 양성 및 시설이 이웃종교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몸소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교계의 임종간호 전문시설로는 정토마을이 유일하다. 교육기관으로는 정토마을, 생활의례문화원 연화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자원봉사단 청주지부 아미타 호스피스회, 천태종 복지재단 니르바나 호스피스 등 15개 기관 및 시설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한국호스피스협회에 등록된 이웃종교 호스피스 기관은 가톨릭 48개, 개신교는 100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호스피스교육 관계자는 "현재 4기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배출된 교육생들이 실제로 임종간호 봉사에 투입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는 "이미 가톨릭, 개신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활동영역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불교계 병원 · 호스피스 기관이 적어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 공간이 적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호스피스 병원기관을 살펴보면 가톨릭 · 개신교계는 84개에 달하지만 불교계는 동국대 병원과 교계 교육시설을 연계한 병원 15곳이 전부다.

임종간호를 원하는 이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교계의 임종간호 활동에 대한 무관심과 스님들의 적극적 지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종간호 봉사를 수년간 해온 한 봉사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 중 스님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 일부 스님들 중에는 임종법문을 하기보다는 임종 후의 49재나 장례의식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스님들이 신도와 환자들에게 임종관을 확립시키고 임종간호를 홍보해야 불자들을 임종간호로 연계시킬 수 있다"며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답답한 세상 노들축제서 시름 잊자

본동복지관 6월 13일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6월 13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 대화합 한마당' 제9회 노들축제를 실시한다.

흑석동 중대부속중학교 소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식전행사 및 기념식)와 2부(지역주민 대화합 한마당)으로 구성돼 진행되며 지역 어르신들께 다양한 공연과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제9회 노들축제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관계 및 효(孝)사상을 고취시키고, 경기침체로 인한 힘겨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02)817-8052

이나은 기자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집

생명나눔 캠페인 전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원사업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생명나눔은 5월 대학축제시즌을 맞이해 5월 19 · 20일에는 성균관대학교(서울), 22일에는 서울시립대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으로 성균관대에서는 100여 명이 기증을, 서울시립대에서는 60명이 기증한 가운데 이상범 서울시립대 총장은 장기기증 희망을 서약하기도 했다.

생명나눔 관계자는 "2009년 4월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자 수는 18만 명이다. 비 혈연간 조직이 적합한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수만 분의 일인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기증희망 등록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마음으로 나누는' 경로잔치

경불련, 신당동서 어르신과 함께 해

몇 년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상임대표 법등 · 이하 경불련) 자비의 집이 5월 22일 '제1회 마음으로 나누는 세상'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경불련이 개최한 '마음으로 나누는 세상' 경로잔치에서 어르신께 공양을 올리는 상임대표 법등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서울 중구 신당 제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 700여 명이 참여해 점심 대중공양, 연예인 초청 공연, 참석자 전원에 선물 증정식을 가졌다.

법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 · 보살행이 전해졌으면 하는 뜻에서 준비했다"며 "소외되거나 외로운 어르신들과 행복과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경불련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 한무, 김영아씨와 가수 오은정씨, 연화사 문화단의 사르나트 댄스팀이 출연해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02)722-9066

이나은 기자

아동미술 큰잔치

사회복지재단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5월 27일 조계사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일원에서 불교계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불교아동미술 큰잔치'를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사찰주변의 풍경을 그렸으며, 사회복지재단에서 마련한 △합장주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 만들기 체험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앞서 어린이들은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에 들러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위해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FAX 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 식 제 공

종도모집 안 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密)로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식품사업부 지사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 경험자

Jawoon FOODS www.jawoonfoods.co.kr (주)자운 식품사업부 문의 : 053)311-2675, 2676
www.jawoonfood.co.kr

"출판 사업부"에서는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大韓佛教禪密宗 www.sunmiljong.or.kr 대한불교선밀종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천도재 핵심은 망자 깨우침 유도"

구미래 실장 비교민속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천도재)가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봉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극히 방편적인 천도재라 할지라도 그 핵심은 망자에게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전달해 깨우침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5월 22~23일 강남대에서 열린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일생에 대한 불교적 관념과 불교 일생의례의 특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기획연구실장은 "불교적 생사관은 사람이 죽으면 중유(中有)를 지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라며 "불교에서 화장(火葬)하는 것도 육신을 이승에서 빌려 입은 '옷'으로 보아 헌옷과 같은 몸을 불태워 이승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끊고 새 옷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래 기획연구실장은 "불교에서는 일생의 범주를 벗어나서도 의례가 지속된다"며 "거듭된 의례는 '업'을 희석시켜 이후 거듭되는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실장은 천도재 횟수와 기간 등에 대해 "혼란을 막기위해서는 유교식 상제(喪祭)를 수용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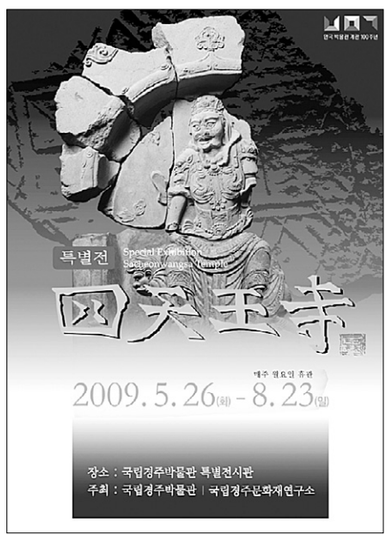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녹유사천왕상 등 유물 한 자리에

국립경주博 26일부터 '사천왕사'展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5월 26일부터 특별전 '사천왕사'를 개최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월 23일까지 열리는 전시에는 사천왕사의 역사와 관련 인물, 사천왕사 조사 현황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와 기와, 전, 토기, 금속 제품 등 미공개 사천왕사터 출토품 등이 전시된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5월 26일~8월 23일 열리는 사천왕사 특별전 포스터.

전시품 가운데 녹유사천왕상(綠釉四天王像)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됐던 것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녹유사천왕상들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와 최근에 발굴된 사천왕상 조각들을 90여 년 만에 복원했다"며 "사천왕상의 온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천왕사(四天王寺)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10년(670)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명랑 법사(明朗法師)가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을 행한 곳으로서 문무왕 19년(679)에 창건됐다.

창건 이후 경주의 복을 빌어주는 절로 지정되는 등 조선 태종 때까지도 중요한 사찰로 여겨졌으나 폐사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동섭 기자

불교명상, 심리치료 활용 제시

인경 스님 "ACT치료법 간화선과 유사하다" 주장

경제적 어려움 등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가 많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노무현 前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도 개인적 고난과 역경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불교는 인간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준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정신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불교가 '마음공부'라 불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불교적 명상은 심리치료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최근 명상치료법은 치유기법에 따라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프로그램(MBSR)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수용과 참여치료(ACT) 등으로 나뉜다.

5월 23일 불교심리치료와 관련한 학술행사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운영위원 미산)는 각각 동국대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명상치료학회가 '명상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평가'를 주제로 연 제5차 학술발표회에서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은 수용 및 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를, 한자경 교수(이화여대)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를 다뤘고, 임승택 교수(경북대)는 현대 심리치료에서의 사띠(sati)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인경 스님은 주제발표 '수용과 전념치료(ACT)에서의 명상작업'에서 ACT 치료법이 간화선이나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CT는 수용(Acceptance)과 전념(Commitment)을 강조하는 심리치료법이다. 1950년대 등장한 행동치료와 1970년대의 인지치료에 이어 최근 등장했다. 주로 공황발작, 광장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강박증, 범불안 장애 등에 활용된다.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인경 스님.

ACT는 ①회피로부터 수용 ②융합으로부터 탈융합 ③개념적 자아로부터 문맥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자각 ④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현재에 접촉하기 ⑤가치결여로부터 가치탐색 ⑥충동적 반응으로부터 행동전념으로 진행된다.

인경 스님은 "ACT는 1단계 회피로부터의 수용, 2단계 '수용' '가치선택'과 '행동'이 ACT의 핵심과제"라며 "개념적 자아에서 과정적 자아를 거쳐 문맥적 자아로 나아가는 ACT와 집착경험에서 관계경험을 지나 진실경험으로 완성되는 유식불교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간화선에서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은 ACT의 문맥적 자아와 비슷하다"며 "선문답이 갖는 심리치료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자경 교수는 '불교의 명상과 서양의 명상인지치료(MBCT)'를 통해 불교에서 연기(緣起)의 유전문과 환멸문이 명상인지치료법과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불교에서 연기의 유전문은 생각과 느낌, 망상과 느낌의 순환을 보여준다. 불교의 수행은 이러한 순환을 끊고 그 순환고리 바깥으로 나오려는 환멸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자경 교수는 "모든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불교적 인식이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에만 국한한 서양의 명상 심리치료법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말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승택 교수는 '사띠(念, Sati) 개념의 현대적 해석 양상에 대한 재검토'에서 심리치료학계에 난립된 사띠 개념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임 교수는 "현대적 심리치료법에 활용된 사띠 개념이 충분한 근거를 지닌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대심리치료에서의 사띠가 ①포괄적이며 이질적 내용들 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 ②사띠의 인지적 효능을 지나치게 확신해 열의적 측면 등이 간과된 점 ③겉으로 드러난 병증에만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승택 교수는 "사띠 개념의 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계율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명상, 불교, 자아초월심리학'을 주제로 개최한 2009년 봄 학술대회에는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와 서광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초빙교수)이 발표했다.

김재성 교수는 '명상연구의 역사와 현황'에서 명상을 △종교적 전통 △자기컨트롤 기법 △주의집중법 △의식단련의 측면으로 분류했다.

이어 김 교수는 명상을 집중명상과 통찰명상(또는 마음챙김)으로 설명했다.

서광 스님은 '자아초월심리학의 역사와 자아초월심리학 관점에서 본 유식오위의 수행모델'을 발표했다.

스님은 "<유식30송>은 불교사상의 중추이며, 불교적 정신치료 이론의 정수다. 하지만 <유식30송>이 갖고 있는 치료적 · 수행적 가치에 비해 실제 심리치료 영역에서 연구 · 활용되는 것은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상월 조사 1922년 태어나"

최동순 연구교수 '처처에…'서 밝혀

천태종조 상월 조사(1922~1974)의 탄생년도를 비롯한 기존 자료의 오류가 밝혀져 천태종학 연구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천태 종학자 최동순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한 <처처에 백련 피우리라>(운주사 刊)에서 상월 조사의 생애 전반을 수정 · 재조명했다.



최동순 연구교수가 저술한 <처처에 백련 피우리라>.

그가 책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조사의 탄생연도다.

최동순 연구교수는 "이제까지 1911년 출생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탄생연도는 1922년이었다"면서 "어린 나이로는 대중을 교화할 수 없다는 어려움에서 방편으로 나이를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최 연구교수는 △연령을 올리는 방편과정에서 상월 조사의 속명이 준각(準覺)에서 준동(準東)으로 바뀜 △서당교육 외에도 신교육 수학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소백산 정착과정 확인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한편, 최동순 연구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5월 30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02)926-8361

조동섭 기자

진제, 불교와 상키야 철학 중재자

선리연구원 월례발표회서 강형철씨 주장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5월 27일 선학원에서 제6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5월 27일 선학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6차 월례발표회에서 강형철(가운데)씨가 진제와 상키야 철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행사에서 강형철(동국대 박사수료)씨는 주제발표 '진제의 상키야 용어번역에 관한 소고'에서 역경가 진제(眞諦)를 통해 불교와 철학적으로 연관 깊은 상키야 철학과의 관계를 조명했다.

강씨는 "진제는 <섭대승론> <구사석론> 등을 번역하는 등 유식학파 입장에서 불교의 교학을 전달했다"며 "상키야철학에 대한 진제의 조예는 <금칠십론(金七十論)>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형철씨는 "진제를 통해 중국에 상키야 철학이 심도있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양경인 상임연구원(조계종 불학연구소)은 '당의 명칭에 대한 재고'에서 당간(幢竿)에 대한 의미를 살폈다.

양 연구원은 "당간은 불교의 발생지 인도에서 유래돼 중국의 영향을 받아 건립됐지만 한국에서는 솟대 및 장승문화에 습합됐다"고 설명했다.

양경인 상임연구원은 "당두에 여러 장식을 한 당간은 자체로서 장엄물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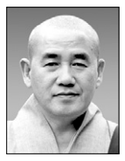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일주문



중앙승가대 최초 명예교수 임명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5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범 스님을 중앙승가대 최초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제21기 월정사 단기출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7월 1~23일 실시되는 '제21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5일까지 모집한다. (033)339-6616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 개최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5월 23일 '제4회 해인만다라 글·그림 잔치'를 개최했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123명에 수계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5월 26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불자 재소자 123명에게 5계를 내렸다.



'원효 성사 탄생 다례재' 법문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5월 27일 경산 제석사에서 열린 '원효 성사 탄생 다례재'에 참석해 법문했다.



제21회 영산대재 봉행

서울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장)은 6월 6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제21회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02)392-3007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

동산반야회 안동일 이사장은 초대이사장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를 6월 7일 동산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봉행한다. (02)732-1206



문화재청 문화재 유실 안전점검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6월 1~12일 문화재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수타사 등 50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042)481-4650



대불청 정상옥 지도위원 국민훈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지도위원은 5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문화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불교방송 방송제작국장 임명

불교방송(사장 최명준) 박상필 팀장(TV제작2팀)이 5월 19일 방송제작국장에 임명됐다.

東大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에 버스웰 교수

동국대 이사회 26일 승인



한국불교학 석학인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 · 56 · 사진)가 초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임명됐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5월 26일 제244회 이사회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5인의 신규 교원 임용건을 승인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동국대 홍보실은 "불교학술원 연구전담교수(비정년트렉)로 신규 임용된 버스웰 교수가 원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한국불교학자로 한국불교를 서양에 소개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온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21세이던 1974년에는 전남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혜명'이라는 법명을 받고 5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1985년 UCLA 대학에서 '<금강삼매경론>의 한국적 기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 UCLA에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금강삼매경>과 지눌 스님 전집을 번역해왔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학 전공자로서는 최초로 중국학과 일본학이 주도하는 미국의 동양학 분야에서 2008년부터 2년 임기의 미국의 아시아 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학회장으로 선출되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해, 영어권 국가에 한국학과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사상실천선양회로부터 만해대상(포교부분)을 수상했다.

버스웰 교수가 임용된 불교학술원은 현재 동국대가 설립중인 연구기관이다. 불교학술원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의 유기적인 연구 지원 ·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다.

동국대 관계자는 "영어권은 물론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도 신망 높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불교학술원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찬불가공양 효과적 포교방편"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 초대회장



"전국 150여 불교합창단 회원들과 함께 국내외에 찬불가를 널리 보급하고 불러서 음성포교의 신기원을 이루겠습니다."

5월 21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61 · 법명 감로수 · 사진) 회장. 부산생명나눔실천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사명대사추모회 후원회장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부산 감로사 신도회장을 맡아 포교 최일선에서 법을 전하는 부루나존자의 후예다. 지역포교 및 신행활동에 앞장서 온 김 회장은 "앞으로 관련 단체 어른들의 양해를 구해 단체장을 사임한 뒤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활성화에 전력투구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 산하기구인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는 종단을 초월해 불교합창단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음악을 통한 포교로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지난 1월부터 종단협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연합회 구성을 합의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가져, 창립 당시 80개 합창단이 연합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전국에는 아직 70여 합창단이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 김 회장은 "합창단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해 전국을 돌며 연합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150여 합창단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로 발돋움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불교를 노래로 전하는 것은 어떤 법문보다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포교방편"이라며 "훌륭한 작곡자들과 연대해 좋은 불교음악을 만들어 보급하는데도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찬불가 경연대회는 물론 해외에 불교음반을 보급하고 세계불교도대회나 유엔 웨삭데이 등 국제행사에서 합창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포교에도 힘쓸 계획이다. (02)2001-1772

김성우 기자

"극락왕생하소서"

불자탤런트 故 여운계씨 22일 타계



47년 연기인생을 불심으로 꽃피웠던 불자 탤런트 故 여운계(사진)씨가 5월 25일 우리 곁을 떠났다.

발인식은 25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교식으로 진행됐으며 많은 연예계 선후배들이 찾아 조문했다. 특히 불자연예인으로 절친한 동료였던 전원주 김형자 선우용녀 등은 하염없이 눈물을 뿌리며 故 여운계씨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전원주씨는 화장이 진행된 벽제 승화원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라고 목놓아 울어 애석함을 더했다.

고인의 유해는 발인 후 운구차에 실려 고인이 처음 연기생활을 시작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KBS를 찾았다. 이날 유족은 영정과 위패를 들고 스튜디오 등을 돌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이후 오전 11시 벽제 승화원에서 화장된 뒤 오후 1시께 경기도 고양시 해인사 미타원에 안치됐다. 고인의 영정은 평소 신행활동을 이어갔던 우이동 화계사에 모셔져 이곳에서 49재도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까지 투병 사실을 숨긴 채 KBS 2TV 아침드라마 '장화홍련'에 출연하며 연기 투혼을 불태운 여운계씨는 급성폐렴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후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향년 69세로 22일 별세했다.

무학여고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2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故 여운계씨는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내사랑 누굴까' '마파도' 등의 작품을 통해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66년 제3회 동아연극상 여우주연상, 1974년 제10회 백상예술대상 여자최우수연기상, 1996년 SBS 연기대상 특별상, 2000년 KBS 연기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부 조창희 신임 종무실장 지관 스님 예방



문화관광부 조창희 신임 종무실장은 5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업무, 문화재 보호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노덕현기자**

광주전남종교지도자협의회 창립



5월 15일 광주전남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무이)는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창립식에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등 스님들을 비롯해 박광태 광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정승가 대중결사' 첫 지역 간담회 열려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과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 등 조계종 중진 스님 50여 명은 5월 27일 대구 보성선원에서 '청정승가 대중결사'의 첫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정토회 등 종교초월 '나눔과 비움 바자회'



정토회, 경동교회, 문정동 성당은 5월 23일 청구초교에서 '나눔과 비움, 나비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행사에는 법륜 스님, 박종화 목사, 김홍진 신부, 배우 배종옥씨 등이 함께했다. **이상언 기자**

지구촌공생회, 독거어르신과 청남대 나들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22일 광진구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충북 청원군 청남대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어르신과 공생봉사단(단장 이지현) 단원 8명이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42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4:2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개강(지방 수련원)
■ **대구 수련원 :** 6월 18일, 20일 / tel : 053-652-2202
■ **부산 수련원 :** 6월 13일, 오후 2시 / tel : 051-645-5068

기력쇠진, 기순환 장애, 수술 후유증, 원인 모를 병증 상기증 산후풍, 간경화 등 기치유 상담. 대표 전화 :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종사학과(宗師學課) 개설 학인 모집
(각 종단 원장급 이상을 모십니다)

종사학과
1. 종 무 행 정 학 (宗務行政學)
2. 종사 사위의학 (宗師四威儀學)
3. 종 사 풍 광 학 (宗師風光學)

〈입학 자격 및 전형〉
① 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각급 원장 이상.
②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서류.
③ 입학전형 : 소속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 증명서 1부
④ 여권사진 : 3매

■ 수강기간 : 1년
■ 개강일시 : 2009년 6월 30일 오전 10시
■ 수강시간 : 매주 화요일 10 -15시(점심공양 제공)
■ 접 수 처 : 031)676-0908 / 010-3100-9977

〈학과 개설 의의〉
1. 본 학림에서는 종사가 지녀야할 종사의 기풍을 선양하고자 함.
2. 종사학은 종사가 지녀야할 선(禪)과 교(敎)와 의식(儀式)행정 등 고도의 법상을 선양하고자 하는데 있음
3. 민족대표 백용성 조사와 봉암대강백의 뜻을 받들고자 함.

龍鳳學林 중앙불교대학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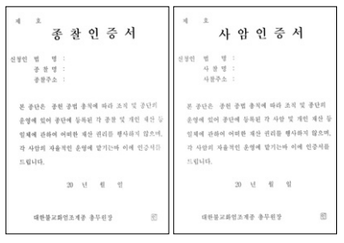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 1권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 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 가정안택의식	韓國佛敎 太古宗 宗正
2. 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 사무실고사의식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 慧 草
3. 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 자동차고사의식	
4. 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 선박고사의식	
5. 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5. 삼재살해소의식	
6. 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6. 태아영가시식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 梵
7. 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 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 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태고종 완주 봉서사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재

"수승한 공덕으로 온 누리 보살피리니…"



서울 태고사에서 완주 봉서사로 이운된 호국삼천불에 대한 점안식이 봉행되고 있다.



봉서사 호국삼천불 이운 · 개금 점안식에서 점안의식을 진행하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전북 완주의 대표적 명산인 종남산과 천호산 사이에 우뚝 솟은 서방산. 산 아래 풍수지리학상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금계포란(禁戒抱卵) 형국에 봉황이 머문다는 뜻을 지닌 완주 서방산 봉서사(鳳棲寺)에 3000 부처님이 나투셨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7일 전북 완주 봉서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과 총무원장 운산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혜종 스님, 원로의원 혜암 · 원법 · 월산 · 도운 스님과 각 지역의 종무원장 스님, 이경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오규삼 완주군 부군수, 김명중 완주경찰서장, 유효숙 완주 용진면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경제회복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종단의 호국삼천불은 100년 뒤면 국가문화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귀중한 목조불"이라며 "신묘공덕과 영험함이 깃든 진묵 대사의 주석처였던 봉서사 법회에 동참한 대중에게 부처님의 큰 가피가 있기를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봉서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다가 前 주지 호산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돼 오늘에 이른다"며 "과거 봉서사 소유 임야 24만평이 국방부에 수용됐는데, 군사시설이 이전되면 이 땅은 마땅히 봉서사로 환원돼야 하므로 종단과 종도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월해 스님은 이어 "이날 삼천불 이운법회를 계기로 진묵전을 이전 복원하는 한편 상운암터에 선방을 개설하고 미륵전

"진묵전 복원 · 선방 개설로 총림급 본산 만들 터"

이날 이운법회를 봉행하게 된 호국삼천불은 1986년 태고종 중앙불교회관이 있던 태고사에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을 위해 과거 · 현재 · 미래의 삼세로 나뉘어 각 천불씩 조성됐으나, 최근 중앙불교회관에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원이 입주하게 되자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봉서사로 이운하게 된 것. 예로부터 불상을 옮겨 모실 때는 반드시 개금을 하고 점안을 해 모시는 것이 불가의 전통 법도로 내려오고 있다.

제16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는 영단을 마련하고 헌화와 참배로 극락왕생을 기원한 이날 법회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공덕은 수승하시어 백옥과 같이 맑고 깨끗함으로 온 누리 세상을 살피시고 32상 80종호의 묘한 상호와 공덕으로 장엄하셨으니, 그 공덕을 찬탄해 중생을 두루 섭수해 편안하게 하리라"는 법어를 내리고 봉서사가 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에 선방을 유치해 선암사에 이은 총림급 본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회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소속 어산종장 스님들의 집전으로 종사이운과 삼천불 이운, 개금점안 의식이 범패와 천수바라 등의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태고종의 '영산재 국토순례대장정' 세 번째 행사를 겸한 이번 '경제회복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재'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만등불사도 함께 봉행했다.

신라 성덕왕 시절(727년) 해철(海澈) 선사가 창건한 봉서사는 보조 선사, 나옹 선사, 진묵 대사 등 한국 최고의 고승들이 주석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특히 신통력으로 많은 이적(異跡)을 행했다고 전해지는 진묵 대사가 출가, 수행하며 열반한 전통사찰로 전북유형문화재 제108호 진묵대사부도가 남아 있다.

글=조동제 전북지사장bud1080@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괘불을 모시고 거행된 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의식모습(사진 위 · 오른쪽 위).





'국난극복을 위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 점안 및 영산대재'에는 태고종 스님과 지역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대축제"
금강선원 산상차 약생수제 구증구포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 · 고혈압 · 혈액순환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 브랜드 수상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잠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맞은 뽕잎을 체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증구포의 전통제다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제로 쓰이는 실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맞은 뽕잎은 신선 엽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맞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뽕잎차 만드는 과정
금강선원 뽕잎 / 뽕잎 채취 /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고혈압에 도움 2. 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 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 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가 최고! – 부산 중구 안미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대구 북구 석현도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시게 할 정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경북 안동 김정일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경기도 용인 박영철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맞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더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초주스님의 뽕잎차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초심(구증구포뽕잎차) 50,000원 → 35,000원
발심(첫서리맞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2통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5)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
http://www.ggzen.or.kr
NAVER 신상차 검색을 검색하세요.

‘금강신심’으로 성불의 길 닦자

범어사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 입재… 70일의 구법여행 떠나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5월 26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의 입재법회를 갖고, 70일간의 구법여행을 시작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제자가 법문을 들었던 것을 재현해, 5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수기대법회를 봉행한다.

수기(授記)란 모두가 존귀하고 값진 존재로 본래 부처임을 눈뜨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에 너는 성불해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마를 만져주거나 광명에 둘러싸이는 등의 기분 좋은 꿈을 통해 수기를 받는다고 한다. <법화경>에는 일찍이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훗날 부처님이 됐다고 전한다.

이러한 기록에서 유래한 이번 1250제자 <금강경> 수기대법회 입재법문은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이 수기의 뜻과 <금강경>의 대의, 수기대법회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 등을 설했다.


5월 26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70일간 지속될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 입재법회가 봉행됐다.


무비 스님이 첫날 <금강경>의 대의와 수기의 뜻 등을 설명했다.

이후 6월 2일 각성 스님(화엄정사 주지), 9일 통광 스님(칠불암 회주), 16일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23일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30일 홍선 스님(前 중앙승가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7월 7일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14일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21일 지환 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 28일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등의 순으로 법석에 올라 <금강경>을 설하게 된다.

주지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 모여 법회를 듣던 1250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인 것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감격스러운 법석이 열려 기쁘다”며 “진지한 자세로 <금강경>을 독경하고, 매회 법사스님의 법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면 이번 수기대법회가 끝날 즈음 이 자리에 모인 1250명 모두가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무비 스님은 입재법회의 입재법문에서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수많은 경전 중 제1의 교과서이기에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한권의 경전이자 영원불변의 진리”라며 “한여름 뜨거운 햇볕과 폭우로 초목이 성큼 자라듯 법회를 마치면 보다 성숙하고 발전한 참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법회에 참석한 1250명의 이름은 동판에 새겨져 범어사에 영구보관 되며, 범어사는 앞으로 10년간 1250제자 <금강경> 수기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오계수호신장번’ 최초 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성보박물관 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일본 가가미신사의 ‘고려 수월관음도’와 함께 통도사의 사격과 역사를 상징하는 통도사 계단 및 도량장엄 의식구가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고려 수월관음도(사진)’는 고려시대의 불화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뛰어나 한국불교회화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사가현 현립박물관에 기탁보관 중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보종찰 통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일반 시민과 불자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귀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아직 한번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통도사의 도량 장엄의식 불화인 ‘오계수호신장번’과 ‘십이신장번’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

일본 가가미신사 ‘고려 수월관음도’ 특별전은 오는 6월 7일까지이며, ‘통도사 금강계단과 도량장엄 의식구’ 특별전은 8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박지원 기자

창포물에 머리감고 악귀 쫓자

화명복지관 단오창포다례축제 열어

음력 5월 5일 단오를 일주일여 앞두고 부산 화명3동 코오롱2차아파트 인근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몰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23일 열린 제2회 단오창포다례축제.

화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란)은 5월 23일 오후 2시 제2회 단오창포다례축제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세숫대야에 창포물을 담아 머리를 감으며 악귀를 쫓기 위해 예로부터 내려오던 단옷날의 풍습을 직접 재현했다.

1부 본행사는 소원성취 종이달기 및 체험마당을 시작으로 기관장 인사 및 축사, 다례 시연,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비음, 단오잠(창포비녀 꽂기), 단오선(단오부채 나누기), 제기 · 장명루 · 연 만들기, 떡메치기, 윷놀이, 전통 투호놀이, 널뛰기, 씨름 등 세시풍습의 재연 및 다채로운 체험행사, 흥겨운 놀이마당이 이어졌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우리춤 화선무 공연, 태권도 격파 시범, 경기민요 등의 무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영란 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부산 교수불자회장 차득근 교수

부산교수불자회·대불련 재도약 ‘목표’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부산 교수불자회 제7대 회장으로 동의대학교 전기공학과 차득근(60 · 법명 무애 · 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5월 29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2층 해마루에서 열린 제7대 회장이 · 취임식에서 차득근 교수는 임기 내 선결과제로 각 대학별 교수불자회 간 교류 활성화를 손꼽았다. 이를 위해 정기 모임과 신행활동, 학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대학 교수불자회 임원진 및 전회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연 1회씩 열리던 집중수련법회를 연 2회로 늘려,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침체된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재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차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불교 동아리’라고 하면 재미없어 하고 창피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대학생들에게 포교하기 위해서는 젊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년간 꾸준히 대불련 지도교수를 맡아온 차득근 교수의 포교 열정은 남다르다. 대불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례없는 졸업시험을 실시해, 이를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수료증을 전달한다. 물론 정기법회 출석률은 기본이다.

“기말고사를 쳐서 그간의 학업을 평가하듯이 ‘오온은?’ ‘색즉시공의 뜻은?’ ‘108번뇌란?’ 등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는데, 대부분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니 기특하죠.”

뿐만 아니라 수업 틈틈이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논어> <소학> 등 공자의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석가모니는 누구인가?’ ‘108번뇌란?’ <반야심경> 등의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한다.

“한 강의실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있지만 이런 짧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차득근 교수가 새학기 신입생들에게 잊지 않고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본립이도생 일체유심조(本立而道生 一切唯心造)’. 마음이 바로서야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 큰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차 교수는 부산 근교의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집안에 작은 참선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직접 목탁을 치고 염불하며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가야산 골짜기 성주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나고 자라, 꿈을 키울 수 있었던 희망과 용기의 원천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의 기도 공덕이라고 말한다.

“선대부터 불교집안이었고, 절에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늘 찾아가서 일손도 돕고 자식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런 어머니의 불공 공덕으로 자랐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로 모두 회향해야지요.”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품에서 삶의 희망 찾았어요”

송광사, 노숙인 위한 희망템플스테이 열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실직 등 고통과 실의에 빠진 노숙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위탁을 받아 5월 27~29일 경내에서 ‘2009년 희망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노숙인 시설 이용자 가운데 자활 의지가 있는 참가 희망자 35명이 참여했다. 첫날(27일) 방사배정, 사찰예절 습의를 시작으로 둘째날(28일) 나를 깨우는 108배, 송광사 배우기, 참선체험, <법구경> 공부, 암자순례, 스님과의 대화가 열렸다. 마지막날인 29일에는 도량청소, 소감발표,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송광사 관계자는 “신규 노숙인을 초기에 집중관리해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법구경> 강의에는 지거 스님(영등포 보현의집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사회재활을 희망하는 노숙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격려했다.

참가자 김형본(44)씨는 “사회에서 중식배달, 제빵 등의 일을 하다 1998년부터 11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지금까지 술에 의지하며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며 “송광사의 골짜기, 산, 숲 등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2년간 노숙생활을 해 온 임민우(34)씨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삶에 의지를 갖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이 외의 참가자들도 송광사가 마련한 심신수련 및 자기성찰을 위한 프로그램에 흡족해했다.

참가자들은 “108배를 통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로 인해 피해 입었을 많은 이들을 돌이켜보니 그동안의 삶에 죄책감이 든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노숙인 대상 템플스테이 행사를 가을 중 한차례 더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템플스테이 행사가 노숙인들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템플스테이의 확대운영 및 가톨릭, 개신교 등의 타종교 선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숙인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월 27~29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노숙자를 위한 희망템플스테이에서 참가자들이 종각을 둘러보고 있다.

춤 노래 마술 숨겨둔 ‘끼’ 발산

전북파라미타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5월 23일 김제 금산사에서는 제13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열렸다.

전북의 명산 김제 모악산에서 전북 청소년들의 큰 잔치가 개최됐다.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행 · 금산사 주지)는 5월 23일 제13회 전북청소년모악축제를 김제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중 · 고등학교 50여개 학교 지도교사와 500여 청소년이 참가했다. ‘5월’ ‘은혜’ ‘연꽃’ ‘아버지’ 등의 시제가 주어진 가운데 문예부문 (운문 산문)과, 사생부문(한국화 서양화), 음악페스티벌 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파라미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사물놀이, 국악, 전통악기, 노래, 단체댄스, 마술 등 다양한 특기를 마음껏 발휘했다.

원행 스님은 금산사 총무 원혜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모악산 금산사는 역사의 현장과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도량”이라며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낭만과 호연지기를 한껏 키우고 자신이 가진 솜씨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오래 오래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부문별로 전북 교육감상, 김제시장상, 파라미타 협회장상이 수여되는 입상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운문부 이의광(남성고), 채고은(천천중) △산문부 손은별(금산고), 고유미(용담중) △사생부 이유선(용담중) 권은혜(중앙여고) △음악페스티벌 남성여중 댄스팀, 전주영상미디어고, 전북 제일고 등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적광전 낙성

남산사, 삼존불도 점안


월탄 스님이 5월 23일 정읍 남산사 점안식에서 법문하는 모습.

정읍 남산사(주지 도선)는 5월 23일 월탄 스님과 재곤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지역의 기관장 및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적광전 낙성식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월탄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부조리와 죄악은 삿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시와 지계를 바탕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차문화학회 창립

초대 회장 여연 스님

다성(茶聖) 초의 선사의 가르침을 이을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여연 스님 · 백련사 주지)가 5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여연 스님을 비롯해 장병안 호남대 총장, 이돈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조기정 목포대 교수, 오양섭 명원문화재단 고문 등 150여 차인들이 참석했다.

창립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여연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 다인이다.

여연 스님은 창립인사말에서 “차는 신화에서 출발해 5000년 인류역사 속에 꽃을 피워왔다”면서 “한국차문화학회는 차 문화계와 차 산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 준비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한국차문화학회는 1985년 한국차문화연구회 창립을 원류로 여연 스님 등이 차문화학회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수차례 창립준비회의를 거쳐 창립됐다”고 밝혔다.

한국차문화학회는 창립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할 학술지 등을 중심으로 차문화연구의 계량화, 과학화 등을 추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각사, 어르신 위한 효잔치

광주 지역 사찰 신도회가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열어 눈길을 끈다.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범정택)는 5월 24일 광주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에게 한방치료와 미용봉사를 곁들인 ‘남구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잔치’를 개최했다.

1부 법요식에 이은 행사는 미용봉사, 한방치료 그리고 축하공연, 점심공양으로 진행됐다.

범정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축하공연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로 취소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과 송승종 계장

“광주 불교생활문화 묶어 책 낼 터”

광주시청공무원불자회 탄생 산파역

광주광역시의 살림을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청에는 150여 공무원 불자들이 있다. 2003년 시작된 150여 공무원 불자의 결집에 산파역할을 한 불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2003년 시청공무원불자회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여성청소년정책과의 송승종(법명 서봉 · 사진) 계장이다.



송 계장은 광주지역의 불교행사에 항상 빠짐없이 참석하며, 회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락자임을 자처한다.

송승종 계장은 고등학교까지 교회에 다녔다. 하지만 사춘기였던 그는 여러 고민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송 계장의 불연(佛緣)은 대학 2학년 때였다. 당시 송대현 교수에게 ‘철학개론’을 수강하던 송 계장은 칸트와 불교사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 줄기 빛을 본 듯 했다.

“바로 서점에 가 <불교학개론>을 구해 열독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앓고 있던 실타래가 한 올 한 올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 다른 불교서적들도 찾아 읽다보니 삶의 방향이 변하는 듯 했습니다.”

송승종 계장은 특히 불교의 인과(因果) 사상과 보시(布施)의 삶을 강조한 가르침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불교의 사상에 심취한 송 계장이 절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하지만 절 문턱은 높았다. 당시 초심자에 대한 사찰의 입문교육은 전혀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다.

몇 년이 지났을까? 무등산 정상의 규봉암을 가는 등산길에서 걸망을 지고 오르는 스님을 만났다. 화순 보덕굴에서 수행하던 강월 스님이었다. 송 계장은 스님에게서 <인과법칙>을 받고 불교 신행생활을 시작했다.

송승종 계장은 광주와 화순을 오가며 스님으로부터 불교 수행의 대의를 배웠다. 지금도 강월 스님은 그에게는 은사(恩師)요, 스승이다.

불교에 대한 송 계장의 열정은 시청공무원불자회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초대회장을 맡은 이호준 자치행정국장과 시청불자회를 발족했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시청공무원불자회 발족 후에는 정기초청법회, 사찰순례, 특별법회 등 많은 행사들을 펼쳐왔습니다. 잠시 어려운 시기지만 불심(佛心)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찰과 불교단체에 도우미를 자처해 온 송승종 계장은 스님과 불교단체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스님들은 대부분 시장이나 최고책임자와 만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정치적 지시보다는 실무자에 의해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업무입니다. 업무 실·국장이나 담당자와 충분이 이야기가 돼야 결과적으로 좋은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공무원불자회 활동이 여의치 않은 요즘, 송 계장은 바람이 하나 있다. “광주의 불교생활문화를 수집하고, 발굴해 책자로 엮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 수행도 쉬지 않고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기술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참회·진호국가·이원진리'로 진각종풍 세울 터"

진각종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식 봉행



5월 26일 서울 회당기념관에서 봉행된 진각종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식에는 5000여 대중이 참석해 축하했다.

"참회와 수행, 회향으로 종단의 발전과 민족의 상생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각종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식이 5월 26일 서울 역삼동 진선여중고 내 회당기념관에서 도흔종인을 비롯한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개식사, 삼귀명례, 화공양, 강도발원문, 개회예참, 취임선서, 취임사, 축사, 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 법회에서 혜정 통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전국의 신교도와 함께 종조께서 교화하시던 17년 종사정신으로 돌아가 종풍을 쇄신하는 일에 진력하고자 한다"면서 "초기 교화정신인 '참회'와 그 실천이상향인 '진호국가(鎭護國家)불사', 실천이념인 물심양면의 '이원(二元)진리' 세 정신을 화합이라는 큰 틀에 담고, 하나된 수행으로 승속동행의 진각종풍의 향기를 피워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혜정 통리원장은 또 "종단의 창종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계승하고 포교와 교육, 복지의 종단3대 종책의 기조를 살려 종행정의 내실화와 교화활동의 심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각문화전승원은 종조정신과 밀교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과 함께 참회와 수행, 회향하는 종단의 위상을 세워 분별없는 화합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지관 스님은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진각종의 발전에 큰 힘이 된 정신은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인 참회와 심인 그리고 삼밀수행(三密修行)이라 생각되어진다"며 "혜정 통리원장님이 뜻하시는 바, 이웃과 함께하는 참회와 수행 그리고 회향의 정신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는 곳 마다 주인공이 되면 어디서나 진리가 실현된다)'이라는 수행자의 힘과 함께 이 세상의 삶과 문화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조창희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혜정 정사님의 제28대 통리원장 취임을 계기로 진각종단이 회당 대종사님의 종지를 받들면서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법계에 두루 펴주시어 한국 불교계 발전에 빛을 더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회장 심상진 선사는 봉행위원장 겸 총무부장 수성 정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새로 선출된 통리원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연맹과의 튼튼한 유대속에 6.15 통일시대를 빛내기 위한 훌륭한 불사들을 이루어 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 와나메티 세계불교우의회 세계본부회장 겸 태국적십자사 총재와 이케구찌 게이캉 고야산 진언종 종기고문, 판두 반다라네케 스리랑카공화국 종교성 장관도 축사를 통해 진각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스리랑카공화국 정부는 혜정 정사에게 그동안 종단과 스리랑카 우호 교류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태국왕실에서는 불상을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5월 23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원불교 국제부장 김상호 교무, 시얌종 종회의원 시라왕사 스님, 푸레바트 라마 몽골불교미술대학장, 프라 탐바라자라야 태국불교승단 원로회의 부종정, 위덕대학교 배도순 총장,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국내외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찰외호 전진대회 '불사'

옥천사암련 등 준비



금강물환경연구소 건립으로 사찰수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옥천 대성사.

옥천 대성사 대웅전 뒤편 30m에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 연구동이 2층 건물로 건립되고 있어 사찰 수행환경 훼손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불교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규탄 전진대회 등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대성사(주지 혜철)가 속한 옥천불교사암연합회와 충북불교총연합회, 태고종 충북지부는 5월 22일 긴급 모임을 열고 "옥천군의 건물허가과정과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환경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며 "불교계 요구가 무시된 채 15%가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수행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규탄 전진대회 등을 열 것"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영학 옥천불교 연합신도회장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하다면 대웅전 정면에서 참배시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국회의원은 "옥천 대성사는 전통사찰로 선남선녀 인연 맺기, 한-베트남 문화교류,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 국군장병 위문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옥천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불교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지역불교계는 결의문을 통해 "금강물환경연구소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산림훼손을 원상 복구하고, 옥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물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용희 국회의원, 한용택 옥천군수, 김창수 옥천경찰서장, 고윤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시하 청주불교방송 총괄국장, 황용관 PD, 태고종 충북교구 남부 분원장 자해 스님 및 옥천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 전수하 옥천불교 청년회장, 김봉환 불영티비 사장, 주경종 대성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 토론에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갈 길 몰라 헤매는 중생 인도해주소서"

천태종, 구인사서 상월원각 대조사 열반대재 봉행


5월 21일 천태종 상월원각 대조사 35주년 열반재가 2만 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제35 주기 열반대재가 5월 21일 오전 11시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도용 종정스님을 비롯한 2만여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을 떠나보내고 35년의 유수와 같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미혹한 저희 종도들은 대조사께서 누리셨던 참다운 사홍서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 잿빛 옷에 무거움을 느낀다"면서 "수많은 법손들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나 공부가 미흡한 만큼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매한 중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해 달라"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사회부장 세영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경제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남북 긴장관계 등으로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가치관마저 혼란스러워 큰 스승의 자취가 더욱 그립다"며 "대조사께서 구인사에 수백만 그루의 묘목을 심어 미래를 준비했듯 천태종도 이를 본받아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찬희 종무실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상월원각 대조사께서는 불법을 통해 나라와 중생을 구했다"면서 "반야지혜와 무애해탈 등 불퇴전의 구도정신으로 천태종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열반대재를 봉행한 사부대중은 오후 2시 상월원각 대조사를 모신 구인사 뒤편 수리봉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원송 정사, 김동성 단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선거법 개정 등 결의서 채택

태고종, '종단문제 해결방안' 워크숍 열어

태고종은 5월 21~22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국장스님 및 전법사를 대상으로 '종단문제의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찾기'를 공통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 행정부원장 지홍 스님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종단의 위상이 크게 추락해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교화일선에서 종단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는 국장스님들을 보니 새 희망을 느낀다"며 "종도들의 올바른 인식과 동참만이 종단을 살리고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 기탄없는 의견개진으로 종단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국 27개 교구 가운데 19개 교구종무원에서 46명의 국장스님 및 전법사들이 동참했으며, △총무행정과 교구행정의 발전방향 찾기 △종도의 자질향상과 교육문제에 대한 방안 찾기 △종단재산의 보호방안 및 재정확립 방안 찾기 3개 분과로 나눠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 동참한 국장 스님들은 전체토론을 통해 종단이 안정과 화합의 바탕 위에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선거법을 개정해 다수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삼보정재의 망실을 파악해 환수하고 부채는 최소화 하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길 바라며 △원칙에 입각한 열린 종무행정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3개항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한편 태고종은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종도들의 뜻과 의견을 수렴, 종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성우 기자

해외 명문대학원 줄줄이 '합격'

금강대 성 총장 "교육패러다임 바꾸는 산증인" 격찬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성낙승) 졸업생들이 해외 명문대학원에 잇따라 합격해 화제다.

최근 강가희(통상통역영어전공, 2009년 졸업) 씨가 미국 명문대학인 보스턴대 대학원에, 김하늬(통상통역중어전공, 2008년 졸업)씨가 미국 미시간대, 인디아나대, 아이오아대, UCLA 등 4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홍길동(통상통역중어전공, 4학년)씨가 타이완을 대표하는 국립 타이완대학 대학원에, 곽은희(통상통역중어전공, 2009년 졸업)씨가 중국 푸단(復旦)대학 대학원에 합격했다.

올해 초에는 정상교(불교학과, 2008년 졸업)씨가 일본 도쿄(東京)대 대학원에, 원영아(통상통역일어전공, 2008년 졸업)씨가 와세다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이로써 올해 3회 졸업생을 배출한 금강대는 미국 대학원에 4명, 일본 대학원에 5명, 중국 대학원에 5명, 타이완 대학원에 1명 등 총 15명의 졸업생을 해외 명문 대학원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내고 있다.

금강대는 이들 중 선발을 통해 영어 · 유럽어권은 년간 2만8000달러, 일본어권은 2만1000달러, 중국어권은 1만4000달러를 2년간 지원한다.

성낙승 총장은 "이 졸업생들은 앞으로 금강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학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산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개교한 금강대는 △수능성적 1~2등급 이내의 우수 신입생 선발 △전교생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제공 등을 하며 '작지만 강한 대학' 소수정예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8

"삶과 죽음은 둘 아닌 하나"

[원문]
서래일촉전삼세(西來一燭前三世)
남국천년천오종(南國千年闡五宗)
유상차증청정채(遊償嗟增淸淨債)
백운회수여수동(白雲回首與誰同)
–화엄사 각황전

[번역]
서쪽에서 온 등불 하나 삼세에 전하니
남국 천년에 오종이 넓게 퍼지도다.
뉘라서 이 청정한 공로 더해서 갚을 손가
누구와 더불어 흰 구름에 머리 돌리리.

[선해(禪解)]

지난 토요일 아침,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슬픔과 충격을 던져 주었다. 얼마 전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맹세했던 도덕성을 무너뜨린데 대해 유감을 소회(所懷)한 적이 있다. 이는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닌 일종의 자기반성에 대한 참회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은 자기반성을 너무 깊게 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말았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고 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살아서 지은 죄를 참회하고 더 많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을 다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그러나 그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 임을 깨닫고 껍질뿐인 몸을 홀연히 벗고 말았다.

인간의 삶속에는 '진실과 가식'의 세계가 늘 존재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식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눈과 마음'이다. 이것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의 진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사람의 눈에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진실과 가식조차 구별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미 그는 그의 잘못을 죽음을 통해 모든 이에게 스스로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던지고 홀로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사람들의 슬픔은 어떻게 하랴.

그렇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사람이 만약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가 늘 넘쳐 날 것이 틀림없다.

오늘은 사설(私說)이 길었던 것 같다. 그럼 화엄사로 사찰 주련여행을 떠나 보자.

지리산 화엄사는 건축적으로 매우 특이한 사찰로서 주불전은 두 건물이다. 유명한 각황전 (국보 67호)과 대웅전(보물 299호)이 하나의 마당을 감싸며 서로 직각 방향으로 서 있는 곳이다.

의상 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각황전은 원래 장육전이라고 불려, 거대한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3층의 대전각 이었다.

실내에는 돌로 벽을 두르고 그 위에 화엄경을 새겨서 돌벽 주변을 돌면서 화엄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말하자면 화엄 신앙의 건물인 셈이다.

대개의 절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가람을 배치하지만 이 절은 각황전이 중심을 이루어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주불(主佛)로 공양한다. 그럼 각황전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서래일촉전삼세 남국천년천오종: 서쪽에서 온 등불하나가 삼세에 전하니 남국 천년에 오종이 넓게 펴지도다.'

달마가 불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한 일은 하나의 등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은 전세(前世), 현세(現世)를 거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널리 동남아까지 불교를 전파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또한 이 불교는 미래에도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그 작은 등불하나가 불교 대승의 다섯 종파인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삼론종, 율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유상차증청정채 백운회수여수동: 뉘라서 이 청정한 공로 더해서 갚을 손가 누구와 더불어 흰 구름에 머리 돌리리.'

달마가 불교를 동쪽으로 전한 업적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청정(淸淨)하다. 이 위대한 업적을 이어갈 사람은 바로 중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가. 이는 그저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지당하고 지당하신 부처님의 말씀이다.

화엄사의 각황전에는 특별한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숙종대왕의 공주가 각황전의 시주로 환생했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날 계파 선사가 장육전 중건불사 대발원의 기도를 올린 지 백일로 회향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그 장육전의 화주가 될 사람이 바로 공양주 스님으로 간택되었다. 공양주 스님은 공양을 짓는 수행만 했을 뿐 화주에는 전혀 인연이 없어 걱정이 태산 같았다. 밤새껏 걱정하며 대웅전에 정좌(正坐)하여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 때 비몽사몽간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대는 걱정 하지 말라. 내일 아침에 바로 화주를 위해 떠나라.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권하라" 하시며 사라졌다고 한다. 공양주 스님은 용기를 얻어 대웅전 부처님께 절을 하며 '맡은 바 화주 소임을 잘 완수하도록 가호를 내리소서' 하고 일주문을 나서서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니 그의 앞에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 노파가 절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화주승은 노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지노파에게 어떻게 장육전을 지어달라고 하랴 싶어서였다.

화주승은 하루 종일 노파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주하기를 간청했으나 노파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노파는 화주승의 정성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난함을 한탄하다가 이윽고 화엄사를 향하여 합장하고 대 서원을 발했다.

노파는 "이 몸이 죽어 왕궁에 태어나서 큰 불사를 이룩하오리니 문수보살이시여! 가호를 내리소서." 이렇게 원력을 아뢰며 수십 번 절한 뒤 소(沼)에 몸을 던졌다. 그 후 오륙년이 흘렀다.

화창한 봄날 화주승은 창덕궁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유모와 함께 궁 밖을 나와 놀던 어린 공주와 마주치게 됐다.

어린 공주는 화주승을 보자 반가워하며 달려와서 우리 스님이라면서 누더기 자락에 매달렸다. 그런데 이 공주는 태어나서부터 한쪽 손을 쥔 채로 펴지 않았다. 화주승이 꼭 쥐고 있던 그 손을 만지니 신기하게도 공주의 손이 펴지는데 손바닥에 장육전이라는 석자가 적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대왕은 화주승을 내전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감격하여 "오! 장하도다. 노파의 깨끗한 원력으로 오늘의 공주로 환생했구나. 그 원력을 이루어 줘야 말고" 하며 장육전 건립의 대 서원을 발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라에서는 공주를 위해 장육전을 중창할 비용을 하사하였고 장육전이 완성되자 사액(賜額)을 내려 각황전(覺皇殿)이라고 했다.

불도를 깨달은 왕이란 뜻과 임금님을 일깨워 중건하였다는 뜻으로 각황전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욕망과 집착에 물들어 사물의 본래 모습 못 봐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핵심 보는 안목 갖춰야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8

구하는 마음 없이 닦아라

[원문]
若是佛不習外道法 佛是無業人 無因果 但有少法可得 盡是謗佛 憑何得成 但有住着一心一能一解一見 佛都不許.

만약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느니라. 부처는 업을 갖지 않는 사람이며 인과가 없는 사람이니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디에 의지하여 부처가 되겠느냐. 한 마음이나 한 작용이나 한 생각이나 한 소견에라도 집착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없느니라.


'면벽 달마도' (정운붕 作).

[해설]

달마 대사께서는"조그만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면 중생심이 부리는 유위법이며 인과의 법이며 과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를 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性品)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니까 얻을 것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으니 인과(因果)가 없는 자리이고 생사(生死)도 없는 자리이고 윤회도 끊어진 자리입니다.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형상이 끊어진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품 자리를 두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邪道)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라는 것은 과거 생에 지어놓은 업에 의한 것입니다. 그 업은 누가 지어놓은 겁니까? 내가 지어놓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녹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업을 녹이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오겠지요. 불사(佛事)가 많이 된 사찰을 보면 스님들이 정진을 몇 천일씩 해서 불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염불 수행은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업을 맑히고 업을 소멸시키는 큰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불의 좋은 기운이 좋은 인연을 불러들여 뜻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달마 스님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수가 없는 자리를 놓고 얻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달마 스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이고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는 우주의 근본 부처님 자리에 눈을 떠야 집착이 끊어집니다. 반야(般若)에서 보면 분명 물질이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인양 집착하는 가운데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실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만, 사실을 모르면 괴로움과 끊임없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주의 근본 실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그저 일념으로 정진해 가면 좋은 기운을 통해서 좋은 인연이 오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는 또 "부처가 되려면 마땅히 자기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하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인과 등의 말이 모두 외도의 법이다"고 했습니다. 수행자라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성(本性)을 보아야 되는데, 본성을 보지 못하면 모두 인과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본성 자리에 마음을 두면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돌아본다면 쥐나 고양이, 늑대 등 짐승으로 태어나는 원인은 하나 같이 욕심을 부린 과보에 있습니다. 반야에서 보면 내 것이 없잖아요. 얻을 것이 없는데 내 것으로 집착하던 욕심이 다시 어리석은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사납고 포악한 사람들은 죽어서 사나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도 초목을 먹고 사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덜하겠지만 살생을 하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문제가 많아요. 마음을 착하고 선하게 써야 됩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고 행하면 모두 외도의 법이고 인과에 걸리게 됩니다. 외도(外道)와 정도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에 마음을 두면 정도이고 실상(實相)을 떠난 자리는 외도(外道)입니다.

그러나 부처라면 외도의 법을 익히지 않습니다. 달마 대사는 "부처는 업을 갖지 않는 사람이며 인과가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있다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짓이니 어디에 의지하여 부처가 되겠느냐. 한 마음이나 한 작용이나 한 생각이나 한 소견에라도 집착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에 대해 큰스님들께서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일보다도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주의 실상, 반야 자리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의 세계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불교를 믿는다면 불교를 비방하는 겁니다. 불교를 모르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애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에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 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 청 : 031) 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

‘본분사’ 이탈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

前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지성 스님은 1940년 경남 진주 출생. 1958년 동화사 입산. 1959년 동화사에서 혜진 스님을 은사로, 인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5하안거 성만. 청송 대전사, 영천 은해사, 옥포 용연사, 송림사, 대구 동화사 주지 역임. 제10·11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지금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이며, 칠곡 극락사 주석.

선지식을 찾아서 지청

“자신 깨달아 알면 우주의 주인” 한 마디 듣고 출가… 창조의 길 걸어

‘계율수행대법회’ 등으로 신행 새바람 주도 “원력 있으면 뭐든 성공”

경북 칠곡 읍내를 지나 극락사로 가는 길. 길 양옆으로 과수원이 이어진다. 연분홍빛 사과꽃이 끝물인 듯 빛을 잃어가고 있다.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비를 머금은 구름들이 몰려 온다. 한줄기 비라도 뿌릴 기세다. 극락사를 품어 안고 있는 건경산은 화마가 지나 간 듯 불탄 흔적이 남아있다. 지성 스님께 여쭈었더니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났어요”라고 무심하게 한 마디 할 뿐이다. 붉은 화염에 휩싸인 산을 보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을까? 하지만 스님은 이미 평상심으로 돌아와 있다. 대웅전이 무사하고, 요사채가 건재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혼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성 스님의 거처는 소박했고, 경전과 많은 서적들이 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동화사에서 행자시절을 보낸 지성 스님은 불교를 알고 출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우연히 들린 진주 응석사에서 의현 스님을 만나게 됐고, “자신을 모르고 살면 인간은 우주의 나그네가 되고, 내가 자신을 깨달아 알면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그 말씀에 불교를 마음에 두게 됐다. 결국 이 한 마디가 출가의 길로 이끌었다.

행자시절 금당선원의 입승스님으로 계시는 지월(指月)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매일 저녁 두세 시간씩 정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석우(石友) 노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과 <금강경> <육조단경>을 배웠다. 석우 노사로부터 배운 공부는 훗날 정진에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일 년의 행자시절을 끝내고 동화사에서 인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은사이신 혜진 스님은 “방일하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니 시간에 투철해야 한다”고 일렀다.

행자 생활을 마치고 지성 스님은 불영사에서 삼동결제를 했다. 은사 혜진 스님을 비롯해 금담 스님, 비룡 스님 등 세 분의 스님들이 겨울 내내 장좌불와를 하는 등 초인적인 정진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구도의 길은 개척의 길이며, 창조의 길이고 발견의 길임을 알았어요. 인간심성을 개척하고 발견하여 참성품을 알고, 참인간을 실현하는 길이 구도의 길임을 불영사 선원에서 절감했지요.”

그 후 깊은 산중의 몇몇 토굴에서 결제 해제가 따로 없는 수행의 날들을 보냈다. 지성 스님께 토굴이야기를 청했더니 스님은 “세월이 지나 다 잊어버렸지”라면서 웃으신다. 그중에서도 심적(深寂) 토굴에서 공부했던 그 때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들려주었다.

“토굴은 원시인의 혈거(穴居)를 겨우 면했을 정도였어요. 토벽이 그대로 드러난 방에서 가마니 깔고 생활했지. 산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꿀밤이라, 꿀밤을 삶아 가루로 만든 것이 주식이요, 산나물에 소금이 부식이었어요. 물론 탁발을 해다 먹을 수도 있지만 수행에 방해를 받을 것 같아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보는 것이 그대로 공부가 되던 때였어요.”

산중이라 겨울 내내 많은 눈이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산짐승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어떤 것은 처연(悽然)했고, 어떤 것은 분연(奮然)했는데, 처연한 것은 쫓기는 입장이요, 분연한 것은 쫓는 입장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발자국을 돌아보게 되더란다. 서산대사의 선시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때에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한 번은 오대산 줄기인 백석산 토굴에서 홀로 겨울 한 철을 났는데, 그곳은 음력 9월인데도 눈이 내리더란다. 설한풍에 문 바를 종이가 없어 쇠풀을 엮어 문을 삼았고, 눈을 녹여 식수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야무야(有也無也)’ 화두를 잡고 치열하게 정진했다. 그런 극심한 토굴 수행이 왜 필요한지 여쭈었다.

“토굴 생활은 외적인 현상계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내적인 갈등과 번뇌를 방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무상한 현실존재의 참모습을 기필코 깨닫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심이 힘든 토굴 생활을 견디어내게 한 것 같아요.”

해제를 하고 신작로로 나와 버스를 타고 제천 시내에 내렸더니, 형사가 경찰서로 데려가 심문을 하더란다.

“그때 거울을 통해 내 몰골을 보았는데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깁고 기운 누더기 옷에 다 떨어진 신발, 내가 봐도 거지 중에 상거지라. 형사가 ‘너 언제 휴전선 넘어왔어? 내가 다 알아. 바른대로 불어!’ 그러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데요.”

오년이 넘는 토굴 생활을 마치고 사중(寺中)에서 생활하게 됐다면서 스님은 오래 전 수행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다. 지성 스님은 토굴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용연사, 송림사, 은혜사 주지 소임을 맡아 여법하게 해내었다. 스님은 2002년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았는데, 그때 동화사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거니와 대구불자들의 의식을 크게 일깨운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저의 출가본사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주지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원로들을 만나 가르침을 구하기도 했지만, 삼보를 잘 외호하라는 등 별로 흡족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제 나름으로 ‘생각하는 주지, 고뇌하는 주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선원 스님들이 공부 잘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강원을 재개원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강원교육에도 힘을 쏟을 것이며, 교구본사로서 포교에도 열을 쏟아야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지성 스님은 임기 동안 ‘백고좌 법회’ ‘화엄논강’ ‘담선법회’ ‘계율수행법회’를 열어 대중과 여러 언론매체의 관심의 한가운데 있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경내 통일대전에서 100일간 설법을 전파하는 백고좌(百高座)법회였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백고좌법회를 할 만한 여건이 아직 안된다면서 말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도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법회를 해 성공을 거뒀어요.”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월운 스님, 천운 스님, 법타 스님, 법장 스님 등 백 분의 스님들이 참여해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등 여러 경전을 설법했다. 매일 천 명이상씩 참여했고, 주말에는 이천 명 정도가 참여했다. 가르침에 목말라 있던 불자들에게 ‘백고좌법회’는 가뭄 날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 다음 해에는 ‘화엄논강’을 실시했다. 이전까지는 고승 법문이 주제도 없이 법상에 올라가 일방적인 법문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런 식의 법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전을 가지고 시작했단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13회의 법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하고나서 토론자들이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질문 시간도 마련했다. 120~130명의 스님들과 400~500의 신도들이 참여했다. 이러한 법회방식도 신도들에게는 처음 접해보는 것인지라 인기가 있었다.

“이천오백 년 전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에서 천이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사-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밥 한 그릇도 감사하라”

백 명의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한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감회도 있었다.

2004년에는 담선대법회(談禪大法會)를 개최했다. 동화사 ‘담선대법회’는 한국 현대 조계종 선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 해인 2005년에는 현대불교신문사와 함께 ‘계율수행 대법회’를 열었다. 지성 스님은 계율법회가 공론화돼 열리기는 근 · 현대사를 통틀어 처음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율사들이 계율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테러, 전쟁, 빈곤, 인종차별, 인권유린, 환경훼손 등 수많은 문제 해결책이 불교 계율에 담겨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과 무너지는 윤리의식을 계율을 통해 치유해 나가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스님의 이러한 원력과 추진력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하여 여쭈었다. 지성 스님은 “나를 버리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간절히 잘 하겠다는 발원을 하면 이 정도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말씀을 이어갔다.

“내 인생관은 간단명료합니다. ‘~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중은 중답게, 주지는 주지답게, 염불승이면 염불승답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자기의 본분사에서 이탈하지 않고 산다면 일을 크게 그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스님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히 이루어낸 그 밑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토굴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리라.

지성 스님은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교사회단체인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함께하는 세상’은 국제포교 및 구호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신을 위할 뿐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이타’ 사상을 근본으로 만들어진 단체란다.

‘함께하는 세상’ 산하 사찰인 ‘이웃절’은 대구지역 최초의 국제포교당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수행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웃절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법당이기에 한국불상, 몽골불상, 스리랑카불상 3개국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그리고 이주민들을 위해 몽골과 스리랑카 스님들의 집전으로 매월 두 차례 정기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지성 스님이 이주민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스님을 찾아와 후원을 부탁하던 몽골 학생들과의 만남이 인연이 됐다. 이후 한 · 몽골불교교류협회를 설립하고, 몽골불교유치원 건립을 지원하는 등 몽골 불교계와 긴밀한 연대를 이어오며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것이 계기가 돼 몽골뿐 아니라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노동자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주노동자 지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지 않아서, 법당과 이주민쉼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도 많기에 대신해서 사무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직장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자들이 절을 찾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에도 눈을 돌려 이주민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는 것도 불자들의 역할입니다.”

지성 스님은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2007년 ‘국토사랑 금강경 사경순례’를 시작했다. <금강경>을 사경(寫經)하며 전국 주요 사찰 33곳을 한 달에 한 번씩 순례하는 것이다. 2년9개월의 대장정중 벌써 중반을 넘어섰다. 순례동참자들은 1000일 동안 매일 <금강경>을 한 분(分)씩 사경하고 발원문을 낭독하는 수행생활을 하는 것이란다.

“눈으로만 보던 경전을 손수 베껴 쓰게 되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깊이 이해하다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은 물론이요 이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심이 필요합니다. 유루의 복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 무한한 무루의 복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요즈음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경제를 비롯해 외적인 요소에 끄달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즈음 같이 잘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처럼 옷이 없는 것도 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돈과 출세를 위해서 산다면, 자신의 고통이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라면 돈방석에 앉아있어도 배고프고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살기에 풍요로워도 풍요로운지를 몰라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질이 아닌 에너지라 할 수 있으며, 육신은 정신 에너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였다.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뇌한다면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닐까?’라는 지성 스님의 이 한마디는 풍요로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의미 있는 화두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6. 청담 대선사

청담(1902~1971) 대선사는 진주사람이다. 1962년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종교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초청된 분들이 청담스님, 박종홍 교수, 서정주 시인, 이기영 박사 네 분이었다. 한 분이 40분씩 2시간 40분 동안 강연하고, 질문을 각기 20분 받기로 하여 오후 6시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맨 처음 올라 간 청담 스님께서 4시간 동안 통째로 다 강연을 하셨다.

“나는 1902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7세에 진주고보에 들어가 3 · 1운동에 앞장섰다가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진주농고 재학 중 여름방학 때 근교 호국사에 놀러 갔다가 포명 노사를 만나 불교이야기를 듣고 해인사, 백양사 등으로 용성 큰스님을 쫓아 다녔이 없었다.

“1937년 내 나이 36세 때 운허스님과 선학원에서 유교(遺敎)법회를 열려하니 31본산 주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종로경찰서에서도 ‘하지 말라’ 협박했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하니 만공, 동산 스님 등이 도와주어 성황리에 마쳤다.



수행 · 행정 등 다방면에 뚜렷한 족적… ‘인욕 보살’의 귀감

다. 하지만 만나뵙지 못하고 23세에 진주농고를 졸업하고 26세에 일본을 다녀와서 고성 옥천사 규영 스님께 출가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시간 걸렸다. 주최 측에서 쪽지를 보내 ‘시간이 넘었다’고 알려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는 계속됐다.

“그해 10월 서울 개운사에 올라와서 50여 청년 스님들과 전국학인대회를 결성하고 일본의 종교정책을 비난하였다. 1930년부터 개운사 강원에서 박한영 스님께 대교과를 수료하고 금강산 유점사, 상원사, 해인사 등에서 7년간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인욕행을 닦았다.”

여기까지가 또 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자기 시간이 넘어간 박종홍 박사님께서는 그만 돌아가시고 청중들도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갔다. 주관자 이기영 박사님이 뛰어다니며 몇 번인가 말씀 드렸지만 소용

8 · 15 해방 후에는 교단의 재건과 불법의 중흥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고성 문수암, 합천 해인사 등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도제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53년 만암 스님이 종명을 조계종으로 고치고, 교화승과 수행승으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정화를 시도하자, 효봉 스님과 함께 선학원에서 제1차 수좌대회를 열어 대처승을 정화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까지가 세 시간 걸렸다.

그 후 1955년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이 되고, 1956년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에 참석차 네팔에 다녀온 이야기, 중앙종회 의장이 되었다가 합천 해인사 주지가 되고, 1958년과 1961년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하자 청중들은 모두 나가 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남이 있었다. 천정만 쳐다 보며 이야기 하다가 내려다보니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웃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가지 않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더니, “우머, 다 가버렸네”하고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 그동안 잠이 들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5시 50분 쯤 돼서 옆에 다방에 오니 그때까지 이기영 박사님과 서정주 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안가고 있습니까?”

“스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허 세월이 이렇게 됐던가.”

그래서 서정주 시인이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보아도 춘향이고, 뒤로 보아도 춘향이입니다.”

“참으로 도인의 소리요.”

하고 떠났다. 이분이 바로 청담스님이다.

그 뒤 스님은 1964년 동국학원 이사장, 도선사 주지, 1966년 조계종 종회의장, 1966년 통합종단 종정, 1967년 장로원장, 대한민국종교인협회 의장, 1970년 총무원장, 1971년 국민회의 의장을 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71년 11월 도선사에서 나이 70, 법랍 46세로 입적하시니 한국불교에 꽃바람이 잤다.

나는 고성 문수암에서 한 차례 뵈온 일이 있고, 서울 총무원에서는 여러 차례 뵀으나 특별히 지도를 받은 일은 없다. 그러나 훤칠한 키에 오조 장삼을 입고 육환장을 들고 대중 앞에 나서면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님의 주위에는 몇 사람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 다녔으나 대부분 퇴속하고 유일하게 시봉을 잘한 혜성 스님이 도선사 주지가 돼 사제들을 데리고 청담중고등학교, 혜명양로원 같은 것을 잘 운영해 스님의 덕망이 후세에까지 빛나게 된 것이다. 스님은 의인이요, 철저한 정치승려로 무엇이고 한번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실천하고 마는 성미를 가졌었다.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8 · 끝>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⑭

지관수행은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

行者當知初中後果皆不可思議 故新譯金光明經云 前際如來不可思議 中際如來種種莊嚴 後際如來常無破壞 皆約修止觀二心以辨其果故 般舟三昧經中偈云

諸佛從心得解脫 心者淸淨名無垢
五道鮮潔不受色 有學此者成大道

수행자는 마땅히 초과(初果) 중과(中果) 후과(後果)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초과는 초발심주(初發心住)인데, 이는 일품무명(一品無明)을 타파하고 백계(百界)에 분신하여 팔상성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다.

중과는 이주(二住)에서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 등각(等覺)까지 총 사십일위(四十一位)를 말한다. 이는 백 천 만억 세계에서 분신을 하여 성불을 한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다. 그 이유는 사십일품무명을 타파하였기 때문이다.

후과는 묘각(妙覺)을 말한다. 이는 구경극치의 과보인데, 여기에 이르면 무명을 끝까지 타파하고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어 최후에 열반산의 정상에 올라 무명번뇌를 영원히 이별한다. 즉 자각각타 원만각인 삼각(三覺)이 원만하고 만덕을 구비하여 최후로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원만하게 하여 등정각(等正覺)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다.

초 중 후 삼과는 모두가 생멸이 없는 구경의 법이다. 이는 분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언어로 의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일으켰다 하면 빗나가고 한 생각 요동하면 어긋난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다고 말하였다.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는 "전제여래는 불가사의하며 후제여래는 항상 파괴됨이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라고 하였다. 여래는 부처이다.

초 중 후로 삼제를 나누어 전제여래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현재의 범부를 지적한 것이다. 일체중생은 무명망상에 미혹해 있다 할지라도 본성은 각자 진여묘각명성(眞如妙覺明性)제불공덕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 원만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어찌 불가사의하지 않겠는가.

중제여래는 현재 수행하는 사람인데, 부처의 이치를 연구하여 정진 수행함으로써 갖가지 공덕으로 장엄한다. 모든 악업을 짓지 않고 뭇 선공덕은 실천하여 일반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은 수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복덕장엄에 해당된다.

가령 경전법문을 듣고 오묘한 의미를 연구한다면 이것은 지혜로 장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복덕과 지혜로서 우리의 불성을 장엄하는 것이 바로 중제여래이다.

번뇌장 등 삼장번뇌 끊으면 열반삼덕 장애
지관염불로 생멸이 없는 구경의 법 증득을

후제여래는 부처님 과위인데, 무상사(無上士)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석가여래와 아미타불과 약사여래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다시는 그분들을 능가할 자가 없다.

이 복덕장엄에 도달하면 수능엄삼매가 견고하여 파괴되지 않으며 지혜의 덕이 장엄하여 실상의 오묘한 지혜가 평등한 대자비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항상 파괴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반주삼매(般舟三昧)는 상행삼매(常行三昧)를 말한다. 구십 일을 한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앉지도 눕지도 않기 때문에 역시 불립삼매(佛立三昧)라고도 한다. 만일 이 삼매가 성취되면 부처가 목전에 나타나게 된다.

<반주삼매경>의 게송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은 자기 마음에서 해탈을 얻었으며 모든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방삼세 일체제불이다. 이 모든 것이 일념심성을 따라서 해탈을 얻었다. 만일 마음을 떠난 밖에서 따로 얻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고 구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옛말에 "제불의 오묘한 도는 모두가 중생심 가운데서 구한다"라고 했다. 중생심은 허망한 마음이 요동치면서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청정한 것을 무구(無垢)라고 한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지혜 광명이다. 비록 번뇌에 쌓여 있다 해도 마음은 번뇌에 오염되지 않고 원래 청정하다. 그러므로 무구라고 하였다.

오도(五道)는 선명하고 청결하여 색진에 오염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도는 천상 인간지옥 축생을 말하며 아수라는 오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중생이 오도로 생사유전을 거듭한다 해도 자기의 본심은 항상 청정하고 선명하여 색진에 오염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오도는 선명하고 청결하고 색진에 오염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이 마음에서 지관을 학습하는 자는 위없는 대승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마음이 만법의 근원이며 마음으로 만법을 일으킨다"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제불 정변지해(正遍知海)는 모두가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 마음에서 지관을 수행한다면 제불지혜와 공덕을 원만하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우는 자는 대도를 성취한다"라고 하였다.

誓願所行者 須除三障五蓋 如或不除 雖勤用功 終無所益

'서원은 수행자'라고 한 문장은 지자대사께서 최후에 이르러 부촉한 부분이다. 서원이라는 두 글자에서 대사의 자비심이 극도로 간절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서'는 그 마음에서 하려고 한다는 의미이고 '원'은 그 목적을 성취한다는 의미이다.

오직 원하는 것은 수행자가 삼장(三障)과 오개(五蓋)를 제거하기를 바랄 뿐이다.

삼장은 번뇌장(煩惱障) 업장(業障) 보장(報障)을 말한다. 중생들은 갖가지 번뇌로 갖가지 업을 조작하기 때문에 생사의 과보를 불러들인다. 삼장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열반삼덕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번뇌장은 반야덕을 장애하고, 업장은 해탈덕을 장애하고, 보장은 법신덕을 장애한다. 만일 삼장을 제거한다면 삼장에 나아가서 열반삼덕을 환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오개는 앞에서 설명했던 탐욕심과 진심과 치심 등인데, 이러한 오개가 있으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덮어버린다. 만일 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수행한다 해도 끝내 이익이 없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밝은 태양이 연기나 구름이나 안개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것과 같다. 따라서 반드시 다섯 종류의 장애를 제거해야만 수행의 효과가 있다.

수습지관의 전체는 열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지관염불로서 구경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 이 한 줄의 문장은 비록 대사가 최후로 부촉한 것이기는 하나 유통분에 해당되기도 한다.

바라는 것은 불법을 배우며 이 책을 열람하고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히 지관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관이란 무엇이겠는가.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일 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끝〉

사종열반(四種涅槃) 4

첫 번째 '자성청정열반'은 부처님처럼 진실한 성인만이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지는 말로 비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생들은 설사 열반의 이치를 모든 부처님과 공유한다 해도 무명불성(無明佛性)의 이치로 있을 뿐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를 두고 '중생마다 불성이 있다[衆生皆有佛性]'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치는 이치로 있을 뿐이어서 어리석은 중생은 평생토록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여의열반'과 세 번째 '무여의열반'은 소승에서 증득한다고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무주처열반'은 소승들이 무여의열반에서 영원히 적정하여 열반을 실재하는 이치로 집착하고 안주하는 병통을 다스리려고 수립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열반에 집착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법집이기 때문입니다.

대승에선 열반은 네 가지 덕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① 상덕(常德)

열반의 자체는 항구 불변하여 생멸이 없으며, 그 자성을 따로 고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변화하는 작용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상(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의 젖는 성질은 항구하게 불변하지만 외부 기온의 차이를 따라서 얼음이나 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② 낙덕(樂德)

열반의 자체는 내적으로는 적멸한 경지에서 영원토록 편안하며, 외적으로는 현실운용이 자유자재하여 하는 일마다 내 마음과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낙(樂)이라고 합니다.

③ 아덕(我德)

아(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가 진실한 측면에서 '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열반경>의 '애탄품(哀歎品)'에서 "가령 어떤 도리가 진실하고 주제가 되어 자체성질이 변역하지 않으면 그것을 '아'라고 한다"라고 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작용이 자유자재한 측면에서 '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열반경> '고귀덕왕품(高貴德王品)'에서는 "대아(大我)가 있기 때문에 대열반이라고 하며, 대자재이기 때문에 대아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④ 정덕(淨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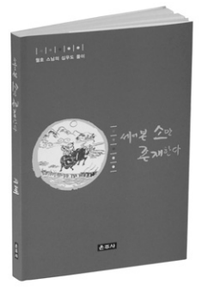
열반의 자체는 일체의 번뇌오염을 해탈시킬 뿐만 아니라 중생교화의 인연을 따르면서도 번뇌에 오염되지 않으므로 청정[淨]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렴상정(處染常淨)의 의미입니다.

■정리=張如舟

알쏭달쏭 불교문화가 한 손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700여 개의 표제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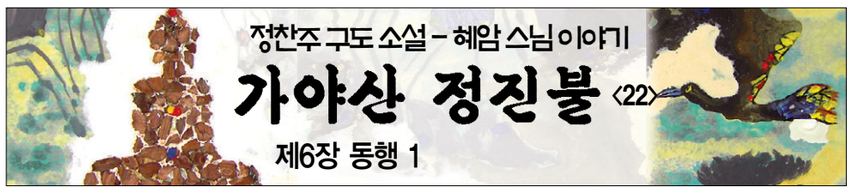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한국불교문화사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편집 (02) 926-8361, 영업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본마음 참나의 불성 자리를 찾아서
월호 스님의 십우도 풀이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참선의 단계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한 참선과 행불수행의 길잡이!
나는 지금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마음공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십우도는 참선수행의 드넓은 바다에서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국판/컬러/208쪽/9,000원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이
수행문답

현장에서 수행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 개념, 수행의 방식, 각 수행법의 요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보신문사 엮음/신국판/424쪽/17,000원

‘공부하다 죽으리라’ 각오로 사고암서 정진 ‘화두타파’



대연 거사는 월정사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웠다. 만나기로 약속한 현각 거사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대연 거사가 자신의 공방에서 월정사까지 달려온 것은 혜암 스님이 수행했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오대산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중심으로 많은 암자가 있는데, 혜암 스님은 젊은 날 오대산의 여러 암자에서 정진했던 것이다.

또 하나 더 이유가 있다면 원당암 무생교에서 자신에게 장좌불와를 권유했던 그 노승을 만나고도 싶었다. 원각 스님은 그 노승을 굳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대연 거사는 언젠가 한번 뵐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접지 않았다.

현각 거사가 약속한 시각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연식이 좀 오래된 승용차 한 대가 대연 거사가 서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다. 현각 거사는 턱수염을 기른 채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그와 구면이었으므로 반갑게 다가가 말했다.

“혜암 큰스님 생가 터에서 뵀을 때보다 더 맑아지신 것 같습니다.”

“대연 거사님도 그렇습니다. 작품은 많이 했습니까.”

“이번 가마에 들어갈 작품들을 초벌구이 끝내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도 진주에서 재가불자들 선방을 2층째 올리다 말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직접 제가 제작한 황토벽돌로 짓고 있습니다.”

현각 거사는 오래 전에 환속했지만 그의 일상은 수행자와 흡사했다. 아침저녁으로 목탁을 치면서 도량석도 하고, 혜암 스님에게 탄 화두를 아직도 들고 있었다. 최근에는 사재를 털어 진주시와 산청군의 경계에 있는 지리산의 발(足)과 같은 수미산 일부를 사들여 혜암 스님의 선풍을 일으키고자 스스로 재가선방을 짓고 탑을 쌓는 등등 열정을 쏟고 있었다.

대연 거사는 풍수의 문외한이지만 그가 재가선방을 짓고 있는 산이 지리산의 발에 해당한다는 말에 흥미를 느꼈다.

부처는 평생 맨발로 걸어 다니며 세상 사람에게 가르침을 폈던 것이다. 그러니 맨발은 중생제도의 가며 수행했던 사실에서 오는 혼란인지도 몰랐다.

혜암 스님이 확철대오한 오대산 사고의 토굴은 스님에게는 수좌로서 분기점이 되는 곳이었다. 혜암 스님이 토굴에서 어떻게 정진했고, 깨달음의 경계가 어떠했는지 스님의 상좌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혜암 스님을 추모할 때면 누구나 예외없이 이 부분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얘기하곤 했다.

대연 거사도 원각 스님이나 각안 스님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혜암 스님은 그 무렵에 오대산과 설악산, 그리고 태백산의 암자를 오가며 용맹 정진하던 중 1957년 초겨울 ‘공부하다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고의 토굴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곳이 바로 사고암(史庫庵)이었다.

당시 겨울철의 사고암은 칼바람이나 겨우 막는 흙벽에다, 지붕에는 마른 풀을 얹은 움막으로 기온이 내려가면 방 안의 온도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렸다. 방안이나 부엌이나 늘 얼음이 얼어 있었다. 혜암은 한 끼니에 잣나무 생잎과 콩 10개씩을 먹으며 버텼다.

방에 불을 때는 일도 없었다. 나무 하는 시간이 아깝고 방이 따뜻하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았다. 화두삼매를 잃지 않기 위해 참선공부 이외의 것들은 모두 잘라버렸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장좌불와를 하고 있으면 얼음장 위에서 가부좌를 튼 것처럼 정신이 바짝 나고 수마가 저만치 달아났다.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초인적인 고행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드디어 4개월째가 되었다. 졸음이 사라졌다. 수면이란 참선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체득했다. 드디어 육신을 괴롭히던 수마가 먼저 항복했고 화두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가 물러섰다. 오로지 화두 하나만 성성했다. 그러한 경계가 선가에서 말하는 백척간두였다.

혜암은 며칠 동안 다시 더 나아갔다. 그제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낮과 밤이 하나가 되고, 아침과 저녁이 하나가 됐다. 온몸이 의심덩어리가 되더니 몰록 심안(心眼)이 열렸다. 스님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깨달음의 게송을 읊었다.


그림 · 최문정

다. 안내문에는 사고의 건물들이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92년에 복원됐다고 쓰여 있었다. 한때 조선왕조실록을 봉안했던 사각으로 들어서자 외부인의 출입을 경계하듯 말벌들이 붕붕 소리 내며 날았다. 현각 거사가 한동안 상념에 잠겨 말없이 걷더니 침묵을 깼다.

“아까 대연 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삼재를 면하는 명당일 것입니다. 당연히 사고암도 참선공부하는 수좌들이 좋은 기운을 받는 명당일 것입니다. 큰스님께서 사고암을 찾아와 죽을 각오로 공부하신 것도 명당의 기운을 받고자 하는 무슨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곳에서 화두를 타파하고 오도하지 않았습니까.”

말벌들이 더욱 가까이 날아와 머리 위를 날며 위협했다. 그 바람에 대연 거사는 머리를 숙이면서 조선 왕족의 족보를 보관해온 선원보각 쪽으로 물러섰다. 선원보각도 방치돼 온 듯 마루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대연 거사가 실망하여 투덜거렸다.

“큰스님께서 오도하신 성지 중에서 성지인데 참 무상합니다.”

“아마도 동경대가 반환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이 이곳에 봉안돼 있다면 이처럼 소홀하게 관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이 없다는 말입니까.”

“실록을 찾아오는데 월정사 스님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록이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서울대 규장각에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대연 거사는 말벌들의 눈치를 보며 선원보각을 나왔다. 입안이 씁쓸했다. 반환된 조선왕조실록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오대산본의 실록을 돌려주지 않는 서울대의 처사가 몹시 못마땅했다. 〈계속〉

조선왕조 실록 일부
日 동경대서 반환
오대산 사고 ‘주목’

영하 20도 방에서 잣나무 잎과 콩 10개씩 먹으며 장좌불와 정진
넉달 지나며 졸음극복 · 장애 물러가…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상징이자, 무소유의 비유가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부처가 열반에 든 이후 사람들은 불족(佛足)을 조각해 그 앞에 헌화하며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던 것이다.

초여름 날씨치고는 더웠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길을 걷는데 이마에 땀이 났다. 멀리 보이는 전나무 길은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지만 아스콘 포장도로는 휘발성분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월정사에도 혜암 큰스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큰스님께서는 주로 상원사나 상원사 산내암자에 계셨습니다.”

“상원사까지는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걸을 수는 있으나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대연 거사는 약속 장소를 잘못 잡은 것을 후회했다. 공연히 월정사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해 시간만 낭비한 셈이었다. 대연 거사가 당황해하자 현각 거사가 말했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월정사에도 큰스님의 흔적이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월정사와 상원사 중간 지점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史庫)가 있습니다만 거기를 가려면 여기서 승용차를 타고 더 올라가야 합니다.”

대연 거사는 사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하고 놀랐다. 강원도에 있는 사고는 설악산 오세암 부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월정사에서 상원사 가는 중간 지점에 있다니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과 같았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오대산의 사고가 위치한 곳을 어떤 착각에 의해 설악산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오대산 사고’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현듯 설악산을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무렵에 혜암 스님이 설악산 오세암과 오대산 암자를 자주 오

미혹할 땐 나고 죽더니
깨달으니 청정법신이네
미혹과 깨달음 모두 쳐부수니
해가 돋아 하늘과 땅이 밝도다.
迷則生滅心
悟來眞如性
迷悟俱打了
日出乾坤明

이른바 오도송도 스님의 성정답게 꾸미는 것 없이 명료하고 단박했다. 오도송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향기로운 인동초 꽃 같았다. 동안거 동안 자결할 각오로 용맹 정진한 끝에 얻은 경지였다. 이후 스님은 상좌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수좌와 재가불자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공부하다 죽어라’고 법문했고, 지금도 원당암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주장자 모양의 조형물이 꽂혀 있게 된 것이었다.

현각 거사는 오대산 사고 가는 길을 아는 듯 앞서 올랐다. 대연 거사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사고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오대산 사고 0.9㎞’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다. 그 정도 거리라면 느린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았다.

산길로 들어서자 상원사로 가는 큰길은 곧 잊혀졌다. 그만큼 사고 가는 산길 주위도 활엽수와 상록수가 어우러져 숲의 정취가 그윽했다. 오대천으로 흘러드는 남호암골의 계곡물이 발산하는 냉기를 쐬자, 월정사를 지나치며 났던 땀이 저절로 들였다. 대연 거사가 상쾌해진 기분으로 말했다.

“사고는 큰절이 가깝고 물과 불, 바람의 삼재(三災)로부터 가장 안전한 땅에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봅니다.”

큰절 가까운 곳에 사고 자리를 택한 것은 사고를 지키는데 승군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오대산 사고도 월정사나 상원사에서 차출한 20여 명의 승군들이 관군과 함께 지켰다고 한다.

오대산 사고.

관심을 끌지 못했던 오대산 사고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고에 보관돼 오던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일부인 47책이 최근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기증하는 형식으로 반환됐기 때문이었다. 오대산 사고에 봉안된 실록은 200여 년 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오대산 남호암골에 사각(史閣)을 1606년에 지어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실록 초고본을 봉안하다가 1616년에는 〈선조실록〉, 1653년에는 〈인조실록〉, 1657년에는 〈선조수정실록〉, 1661년에는 〈효종실록〉, 1678년에는 〈광해군일기〉, 1728년에는 〈경종실록〉, 1805년에는 〈정조실록〉을 보충하여 봉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13년 10월 데라우치 총독이 사고의 모든 실록을 강탈해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 보관하다가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됐지만 대출됐던 47책은 화를 면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고 관리의 총책임자인 실록수호총섭(實錄守護總攝)은 월정사 주지가 맡았으며 수호군 60명에 승군 20명이 사고를 지켰는데, 특히 승군들은 사고사(史庫寺)에 머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고와 선원보각 뒤에 자리한 오늘의 영감사는 사고사의 후신(後身)이 틀림없었다.

흙길이 끝나자, 반반한 돌들이 깔린 산길이 드러났다. 그러나 돌들 사이로 발라진 시멘트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산길이었다. 그 산길 끝에서 사고가 보였고, 바로 옆 엉겅퀴 꽃이 핀 풀숲에서 몽당연필 같은 ‘오대산 사고 수직사(守直舍) 터’라는 표지석이 튀어나왔다.

수직사 터와 그 밑에는 화전 같은 경작지가 보였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20>

공부 안하면 교단부흥도 못한다

유교제자(遺敎弟子)1

(732호에 이어) 유교제자(遺敎弟子)란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맥(法脈)을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제자라는 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법의 씨앗을 망가뜨리는 불효한 후손이 될 위험성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난 세대(世代)이다. 이는 마치 부모를 일찍 잃은 고아(孤兒)들이 혼자 살아나가는 것처럼 자력으로 고달프게 살아가야 할 운명도 짊어지고 있지만 개중에 성공하여 가문을 크게 되살리면, 이른바 극가지자(克家之子)라 하여 그 광영이 천추(千秋)에 빛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어리석음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순간이 곧 부처

콩심은데 콩나는게 진리… 방법 옳아야 결과 좋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53년,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여년, 우리 선배(先輩)님들께서 숱한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으면서도 불교가 사회의 자랑거리로 인정받아 왔었는데 근자(近者)에 와서는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민초(民草)들의 인식(認識)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아니, 멀어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멀어져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생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가 그 전체일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왕정체제(王政體制)에서 살아왔다. 왕정체제에서는 뛰어난 도인 하나만 나와서 왕의 신임을 받아내면 그 다음의 일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승속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 노력하다가 다행히 하루아침에 힘 있는 분의 눈에 띄면 성사(成事)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 까닭에 삶의 현장에서 뒤처진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은 거의 폐기(廢棄)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지난날 우리가 모른 체했던 그들이 세월 따라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는, 지난날 자신들을 위로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분의 은공을 잊을 수 없어 그들을 따라갔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약세교단(弱勢敎團)으로 전락했다. 그것을 만회(挽回)하기 위해 2000만 불자라는 구호(口號)를 내세워보았으나 별 약발이 없다. 교단약세현상은 말이 필요 없다. 사찰마다 출가자와 신도들의 연령은 상한선을 향해 치솟고, 인원수는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개중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아무도 언급하는 이가 없다는 점이다. 마치 중병에 걸린 이가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도리어 자신이 건강하다고 외치는 것과 같이 말이다. 하기야 내가 잘못 알고 미리 호들갑을 떠는지도 모를 일이니,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겠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에 감히 다음과 같이 몇 말씀 제안하노니,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지금서 계시는 자리에서 자기공부를 시험한다는 생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란다.

만에 하나 이 공부에서 힘을 얻는다면 자신의 공부에 크게 진전이 있음은 물론이요, 쇠약해가는 교세를 다시 부흥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은 자랑스러운 유교제자의 한 분일 것이다.

첫째, 불교인은 부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순간이 곧 부처이니 항상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공부를 하라 하셨을 뿐 신이 아니시다.

둘째, 불교인은 진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칙이 진리다. 복되게 살려면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그 준비를 하면 분명 변함없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불교인은 벽돌을 쌓듯이 생활해야 한다. 생활이란, 누군가와 어울려서 산다는 뜻으로서 마치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봉선사 조실

연기의 근본 실상은 '뭇 생명들의 마음'

정화 스님 '대승기신론' 상세히 풀이… 마음의 비움과 나눔 강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연기각성(緣起覺性)에서 한 생명이며 낱낱 생명 그대로가 우주의 생명이라는 믿음, 곧 대승(大乘)을 믿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간결한 문장 속에 많은 뜻이 담겨있기에 읽어도 모른다하여 '깜깜 기신' 이란 별칭이 붙은 <대승기신론>. 서울 길상사 수련원장 정화 스님이 불교 논서의 백미인 <대승기신론>을 쉬운 우리말로 옮기고 자상하고 상세한 풀이를 더해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기원 2세기 초(또는 중엽) 마명 스님이 저술한 <대승기신론>은 대승 경전에 설해 있는 모든 사상을 회통(會通)해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승의 본질을 밝혀놓은 문답식 불교 논문. 그 내용은 예로부터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 사신(四信), 오행(五行)으로 요약해 왔다. 이 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일심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눠 설명하고, 또한 일심이 가진 특성을 체(體) 상(相) 용(用) 삼대의 이론으로 전개해 궁극적으로 대승에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 실천적 행을 닦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책에서 정화 스님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연기(緣起)라는 뜻을 '마음'으로 대체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연기의 근본 실상이 '뭇 생명들의 마음'이 된다. 뭇 생명들의 마음이 법계를 뜻하는 '큰 수레' 곧 '대승(大乘)'이라는 것이



다"라고 했다. 스님은 또 법계 전체가 중생의 마음이며, 좁쌀보다 작은 욕망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법계의 인연인 줄 보고 아는 순간 욕망에 갇힌 마음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한계를 벗어난 '큰마음'이 된다고 했다. 마음은 모습마다 그 자체로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에 이것이 <대승기신론>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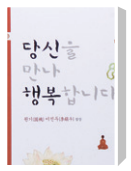
이러한 기신론의 알쏭달쏭한 가르침을 내면화한 정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 알아차리라"고 당부한다. 마음 살핌을 통해 분별된 나가 사라진 '마음 비움'의 자리에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며 한없이 커진 생명들의 인연을 나로 삼는 '마음 나눔'인 자비심도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마명 스님 당시 보다 오늘날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믿음이며 실천이 아닐 수 없다.

길상사 일요가족법회에서 불교교리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 <육조단경>을 강의하고 있는 스님은 그동안 <금강경> <반야심경>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생활속의 유식 30송> <법성게> <중론> 등을 쉽게 풀어썼다.

법공양 | 각권 2만2000원

김성우 기자

불교계 크고 작은 일들의 뒷얘기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진두 지음
염화실 펴냄
1만2000원

저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로 출가를 했었다. 그것도 시대를 호령하던 성철 스님 문하로의 출가였다. 그리고 다시 세속으로 나와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수행자의 길과 언론인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작게는 수백가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크게는 '그게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두 길을 걸은 사람의 눈에 세상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에 있다. 저자의 짤막한 글들에 담긴 서정과 비판 그리고 감성과 애증이 삶의 편린들을 쓰다듬는다. 불교신문의 칼럼 코너에 실었던 글들이라 최근 몇 년(2002~2008년) 사이에 불교계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되새김질할 수 있다. 물론 저자의 눈에 비친 일들이 저자의 마음을 따라 정제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상징화되기도 했다.

그래도 저자를 통해 새로운 사건의 두시 이야기들을 알게되고 '큰스님'들의 마음 자락을 헤아리게도 되는 재미는 불교전문 칼럼을 읽는 프리미엄이라 할 것이다

임연태 기자

성불의 길 닦는 무한한 나눔 강조



황금의 수레바퀴
한탑 스님 지음
본북 펴냄
1만2000원

고해(苦海). 왜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는가?

문사수법회 회주로서 호남권에서 활발하게 법회활동을 하고 있는 한탑스님(담양 정토원 회주)은 '나'와 '너'라는 상대적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고통이 비롯된다고 역설한다.

스님은 '지혜와 나눔의 열 가지 지혜'를 부제로 한 <황금의 수레바퀴>를 통해 생존경쟁, 물질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다툼을 떠나 상생과 평화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나의 생명과 모든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스님은 육신을 자기 생명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또 부처님이 다로 계셔서 불쌍한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여래가 제도할 중생이 없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미 부처로 눈을 뜨면 부처와 중생이 다로 없다는 의미다.

이는 중생이 부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부단히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부단한 수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이다.

한탑 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정토 염불 수행에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수행 근간이 있다고 말한다. '보현행원품'은 누구에게나 항상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주기만할 때 비로소 무한한 안심과 행복이 온다는 것.

가장 귀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의 상징인 황금과 진리의 항상성을 상징하는 수레바퀴. 한탑 스님의 법문은 바로 황금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생활로 접목시키는 지혜를 안내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www.hyunbul.com으로 오세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2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문학의 숲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5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6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7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8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9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라	성전	개미
10	삶은 고기 아니다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13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빗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 2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20만원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16만 5천원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김봉환 합장


삼청동에는 젊은 불교가 있다

복합불교문화공간 '스페이스 붓-아트' 6월 3일 개관

젊은이들의 문화거리로 떠오른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복합불교문화공간이 마련됐다. 6월 3일 문을 여는 '스페이스 붓-아트'가 젊은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새로운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 붓-아트'(원장 박경귀)는 불교회화연구실 '스튜디오 선불화'와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선+' 불교예술 교육 및 행사지원을 전담하는 '아카데미 선그림'으로 기능을 세분해 운영된다.

'스튜디오 선불화'는 박경귀 원장이 1989년부터 운영해 온 '선불화공방'을 개방한 것으로 불화연구와 창작 공간이다. '선불화공방'은 고려불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치로 새로운 개념의 현대불화 창작에 몰두하며 수원사 '관음도' 장수 성관사 '아미타극락변상도' 등의 작품을 통해 불화의 현대화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왔다.

'아카데미 선그림'은 불화를 포함한 불교예술의 사회적 확대를 목표로 각종 교육과 행사를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미술 체험 강좌와 삼청동 일대의 다양한 공방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모듬강좌, 미술교사나 불교미술교육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위한 교육지원,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의 불교미술 체험부스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선+'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불교미술전시, 소형 세미나, 독립영화 상영, 시낭송회, 음악공연 등을 위해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불교문화의 저변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작가와 독자의 자연스러운 대화공간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다. 뿐만 아니라 불교관련 각종 온라인 카페의 모임 공간으로도 개방할 계획이다.

'스페이스 붓-아트' 박경귀 원장은 13세에 불화작업에 입문해 전통도제식 방법으로 불화수업을 받았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박 원장은 "불화가 경배의 대상으로서 사찰장엄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해왔지만 이제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할 때가 됐다"며 "불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불교예술이 자유롭게 호환되고 젊은이들이 그 기류에 동참해 문화예술로서의 불교를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페이스 붓-아트'는 박 원장과 양순복(문화재수리기술자) 마성우(불화가) 김수정(불화가) 작가 등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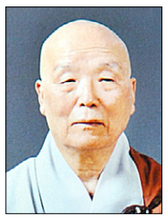
한편 '스페이스 붓-아트'는 6월 3일 개관을 기념해 '나눔과 공생전'을 연다. 이 기념전에는 김창균 동국대 교수를 비롯 신주호 김석곤 고승희 이수예 권지은 등의 불화가들의 초청 작품과 회원들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무엇보다 이 기념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 월드'에 기부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6월 3일 오후 5시에는 '스페이스 붓-아트'의 개관 및 기념전을 축하하는 축하공연도 열린다. (02)733-0730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 종로구 삼청동에 마련된 불교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붓-아트'는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의 의복인 '분소의'를 이미지화해 지어진 건물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물 앞에 선 박경귀 원장. 사진=박재완 기자

보배 보다 존귀한 진리 담아 '일필휘지'

보성 스님 선묵집 '범일묵적' 나와





"모든 보배 구슬보다 부처님 말씀이 존귀하고(輕萬璧以重金言) 온갖 보배 보다 진리의 경전이 존귀하다(棄千寶二尊寶偈)."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사진)의 선(禪)사상이 담긴 붓글씨와 그림, 낙관 등을 수록한 선묵집(禪墨輯)이 나왔다.

송광사(주지 영조)는 최근 보성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선의 종지(宗旨)를 전하기 위해 전해준 휘호 100여 점을 모아 <범일묵적(梵日墨跡)>을 간행했다. 5월 9일 하안거 결제를 맞아 "머리에 불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정진하라"며 당부했던 보성 스님의 가르침이 문자반야로 거듭나 대중에게 다가온 것.

총 215페이지 분량으로 이뤄진 선묵집은 휘호에 대한 해설과 낙관, 연보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보성 스님의 문도와 송광사 대중들이 동참한 '범일묵적간행위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스님의 휘호를 모아 간행됐다. 간행위원장을 맡은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간행사를 통해 "선가(禪家)에서 흔적을 남기기를 꺼리는 것이 풍습이지만 큰스님이 자비심으로 대중을 제도한 자취를 되살리기 위해 선묵집을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스님의 만류를 묵빈(默賓)하며 인연 대중에게 흩어진 묵적들을 수습해 1년 여 동안 준비 끝에 서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발간배경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종사께서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종지 선양은 물론 선적(禪寂)의 여가에 묵필로써 불교의 묘지를 지면에 농현(弄現)하신 필적이 단아하고 해직(楷直)한 자획은 사람들의 심성을 맑혀주는 지청수가 된다"고 축사했다. **김성우 기자**

도전정신 살아 숨쉬는 찻그릇 선보여

양계승 도예가 '찻그릇전' 6월 3~9일 서울 인사아트 6층

금산 양계승(51) 도예가의 '찻그릇전'이 6월 3~9일 서울 인사아트 6층에서 열린다.

평소 "실험하지 않는 가마는 죽은 가마다"란 말을 입버릇 처럼 해온 양 작가는 찻그릇에 대한 애정과 실험정신을 담은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연꽃문 분청 다기, 백첩 균열문 다관과 받침, 즐문 다합, 매화피 다완 등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토속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예술미를 선보인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창작에 몰두해 온 양 작가는 황토를 이용해 서민풍의 도자기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유약을 개발하는 열정을 보여 왔다. 양 작가는 "저는 기교를 버리고 작의를 버리고 쉬엄쉬엄 일하지만 아직 무욕(無慾)이라는 욕심이 남아 있다"며 "만들고자 해서 만든 그릇보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릇을 굽고자 한다. 흙을 밟고 두드리고 빚는 것이 아니라 흙속에 묻혀 잠자던 그릇을 깨워 세상으로 불러내겠다"고 말했다.
(02)736-1020 **김성우 기자**

홍성란의 시조 아카데미

만해축전·백담사 체험도 OK

시조도 공부하고 만해축전 참가는 물론 백담사 산사체험까지 할 수 있는 문학교실이 열린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유심아카데미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서울 강남사무소에서 '홍성란의 시조아카데미'를 연다.

6월 1일 '시조의 이해와 창작법'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로 시작되는 이번 여름 학기는 오는 8월 만해축전에 동참할 수 있으며 백담사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20명. (02)739-5781

김성우 기자

원담 스님이 남긴 선시, 김대열 그림 만나

원담스님 추모 1주기 선시화전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來無一物來)/ 갈 때 한 물건도 없이 가는 것이로다(去無一物去)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去來本無事)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靑山草自靑)."(원담 스님 열반게)

지난해 3월 입적한 前 수덕사 방장 원담(1926~2008) 선사 선시(禪詩)가 한국화로 거듭났다.

덕숭총림 수덕사 서울 포교당 대륜사(주지 일연)는 6월 3~9일 서울 인사동 목인갤러리에서 '원담 스님 추모1주기 기념 선시화전'을 연다. 원담 스님이 남긴 가르침과 선시 중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 20여 점을 골라 김대열 동국대 한국화과 교수가 그림으로 옮겼다.

이번 전시에 대해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선사의 깊은 선지(禪旨)는 물상을 떠난 겁외(劫外: 시간 밖)의 소식이라 언설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일연 스님의) 선사를 추모하는 정이 지극하여 선시화로서 선사를 유추(遺追)하려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치하했다.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스님의 게송이 초여름 열기를 식혀주는 한줄기 감로수라면, 김대열 교수의 붓놀림은 소나기 곁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라고 축하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불교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6월 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6일 오후 3시에는 일연 스님의 '일상에서의 생활불교와 기도정진' 법문도 진행된다. (02)722-5055

김성우 기자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열려

조계종, 8월 18~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접수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한국 전통 불교미술을 계승, 발전시킬 인재육성을 위해 '제24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연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이 후원하는 불교미술대전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품사진과 제작의도가 담긴 작품설명서(포트폴리오)와 함께 8월 18~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접수하면 된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와 2차 수상권 작품심사를 통해 대상(1500만원), 최우수상(50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 특선, 입선 등을 선정해 오는 10월 7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시상한다. 수상작은 10월 7~2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02)2011-1770~5 **김성우 기자**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식 소장사 영가천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0,000원→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9 밥은 선물

계란찜처럼 부풀어 오르는 인연들

내게 있어 계란과 스님들과의 상관관계는 지대하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도출된 귀납적인 결론이다. 이왕지사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나는 계란이 스님들의 건강을 위해 아주 긴한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견해를 갖게 된 경험적인 근거들을 제시해보겠다.

우선 그 첫 번째 일화는 수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정서에 사로잡혀 사찰여행을 즐기던 때 땅끝 마을에 위치한 한 절에 들르게 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그 절의 주지스님은 늦은 밤에 도착한 나와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런데 절에 도착해서야 스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야심한 밤에 스님의 뱃속이 출출할 듯도 싶어 기차 안에서 먹고 남긴 찐계란이 생각났다. 하지만 여분을 드리는 게 결례인 듯싶어 망설이는데, 그 마음을 아셨을까. 스님이 먼저 "그거 찐계란이네"하시는 거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드실래요 스님?"하며 얼른 건네 드리니, 스님은 "찐계란 본지 참 오래네"라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계란이라도 되는 냥 조심스레 껍질을 벗기어 한입 한입 아껴 드셨다. 출가자에게 무척이나 귀한 공양을 올린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찐계란 한 알을 보약처럼 드시던 그 모습은 오랜 기억으로 남았다.



탱글탱글하게 부풀어오른 계란찜.

두 번째 계란에 대한 일화는 작년 겨울로 기억된다. 위빠사나 수련회에 참석한 나는 스님들 속에 섞여 수행을 하게 되었다. 그 절은 수련회 기간 중 참가자들이 직접 돌아가며 공양을 준비하도록 되어있었다. 마지막 날 점심공양을 준비하기로 되어있던 나는 그날 새벽 좌선 때부터 긴장이 되어있었다. 요리에 익숙하지도 않거니와 여러 스님들을 위해 공양을 준비해야하는 압박감 때문에 숨 관찰은커녕 숨쉬기도 부담스러울 지경이었다. 머릿속에는 무엇을 요리해야할지 고민하기에 바빴다. 매일 아침은 절의 주지스님이 직접 죽을 쑤어주셨는데, 내 맞은편에서 죽을 들던 한 수행자가 "혹 계란찜 하실 줄 아세요?"라며 조심스레 물어왔다. 그 물음은 이른바 '언중유란(言中有卵)'이라고나 할까. 음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남방불교의 수행법을 따르는 절이다보니, 그 절 냉장고에는 마침 두어 줄의 계란이 쟁여져있었다. 점심공양 메뉴에 대한 나의 고심은 그제야 해결됐고, 공양을 준비해야하는 심적 부담은 한결 가뿐해졌다. 계란만큼 요리하기에 만만한 식품도 없으니 계란찜뿐이랴, 오만 야채를 다져넣고 김까지 올려 돌돌 말아낸 계란말이까지 덤으로 준비할 생각을 품으니, 그 마음은 계란찜마냥 부풀어 올라 또한 망상이 됐다. 즐거움이나 설렘조차 수행에는 걸림이니, 나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요 좋은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다. 여하튼 내 망상의 크기만큼이나 부풀어 오른 계란찜과 계란말이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스님들은 그 밥상을 이르러 '최후의 만찬'으로까지 명명해주셨다.

이후로도 내 삶에 '계란'이라는 음식은 스님들과의 인연 속에 심심찮게 등장되는 매개물이 됐다. 최근 그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비구니 도현 스님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해맑고 솔직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동자승과도 같은 스님을 알게 된 것은 인도철학을 강의하는 한 강의실에서였다. 왕성한 호기심의 속성이 통했던지 초면에도 낯설지 않았던 스님은, 자리를 잡지 못해 헤매는 내게 여러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헤치고 강의를 듣기에 명당인 자리를 잡아주었다.

이 신세를 어찌 갚을까 잠시 고심하던 찰나, 그날도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가방 속에 들어있던 찐계란이 생각났다. 땅끝마을 스님과의 추억이 떠올라 주저 없이 선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강의가 끝난 후 급하게 사라져가는 스님에게 달려가 "스님, 선물요~"라며 냉큼 안기니 엉겁결의 일에 스님의 맑은 눈이 휘동 그래졌다. 그날 스님은 알았을까? 결례가 됐을지 모를 선물보따리를 품에 안겨드린 까닭을.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5 돈 잘 쓰는 법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돈의 '영적 파워' 베풀고 나누는 이에 권위 부여

넓은 들판에 못이 있어 맑고 깨끗하고 시원해도
그것을 즐겨 쓰는 이가 없으면 이내 그대로 말라 버리고 만다.
훌륭하고 값진 재물도 나쁜 이가 지니게 되면
자신도 즐겁게 쓰지 못하거니와
불쌍한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지도 못한다.
부질없이 스스로 괴롭게 모으기만 하고
그렇게 모았다가는 허무하게 스스로 잃고 마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도 즐기며 기분 좋게 잘 쓸 줄 알고
가여운 이들을 위해 널리 보시해 공덕을 지으면
서도 차곡차곡 더욱 알차게 번성해나가리라.

-<잡아함경> 중에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건 돈을 어떻게 잘 쓰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모이기도 하지만, 한 순간에 나가서 흩어지기가 그 무엇보다도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수고로움 없이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서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해 소중하게 들어온 돈은 오래오래 진득하니 나와 함께 간다. 이처럼 돈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 사람이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돼야 할 돈이 화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파워가 있는 돈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진정 오래 가는 부자로 살 방법일까?

첫 번째, 값어치 있고 복되게 나눠 쓰는 돈은 반드시 원하면 채워지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고아원에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계기가 돼 200만원으로 약정액을 올린다면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인상액에 대한 돈이 신기하게 들어오곤 한다.

두 번째, 돈의 영적 파워는 베풀고 나누어 쓰는 이에게 권위를 부여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직원들을 그야말로 식구마냥 챙기신다. 경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직원들이 식사를 거르게 되면 간식까지 직접 사다주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직원에게는 가끔씩 용돈도 쥐어 주시곤 한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은 진심으로 그 사장님을 존경하고 순종한다. 물론 돈으로 먹여 살려주니 직원들이 그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재물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니 그 공덕(功德)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나는 경제 능력이 뛰어나고 그 능력을 나 혼자만이 아닌 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데 쓸 것이다"라는 확실한 재물관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혼자만의 만족 · 행복 · 필요만을 위해 돈을 모은다면 그것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이 될 뿐이다. 물론 그런 이유에서라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질적인 여유와 능력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능력을 이롭게 발휘해야만 한다. 교육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듯이, 돈을 버는데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확실하게 벌어주고, 시원하게 나누어 쓴다. 예를 들어 어느 사업체가 날로 번성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이유는 그 사장 혼자 잘나서도 아니고, 사장 혼자 복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들 모두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안다면 어찌 나 혼자 잘나서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만 독식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돈을 아끼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돈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돈도 날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02)576-7575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9

위·장에 좋고 피부에도 효능

천년초가 지닌 항상성은 우리 몸의 체온, 혈압, 호르몬분비, 체액 분비, 신경의 전달 등 이루 말로 형언하기 힘든 많은 활동의 정상화를 말한다. 천년초 글을 기고하고 있는 중에 최근 천년초를 잘 챙겨 먹고 있는 아내에게 '가장 탁월한 효과를 지닌 건강식품'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봤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는 '천년초'라고 대답했다. 사실 부모님 때부터 건강식품과 민간요법을 달고 살아온 나로선 지금의 나의 아내를 만나면서 비염과 환절기 감기에 시달리는 아내의 체질 질환을 개선시키고자 했었고 그러면서 많은 종류의 건강식품을 꾸준히 먹여왔다. 물론 본인이 체중 감량을 하고자 해 다이어트 역시 건강식품으로 구성해서 10kg이상 빼기도 했다. 비염도 많이 개선됐지만 고질 질환인지라 관리가 느슨하면 다시 증세가 심해지고 환절기에는 특히 더했다. 만성비염은 정말 고치기 힘든 질환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양과 종류의 건강식품을 먹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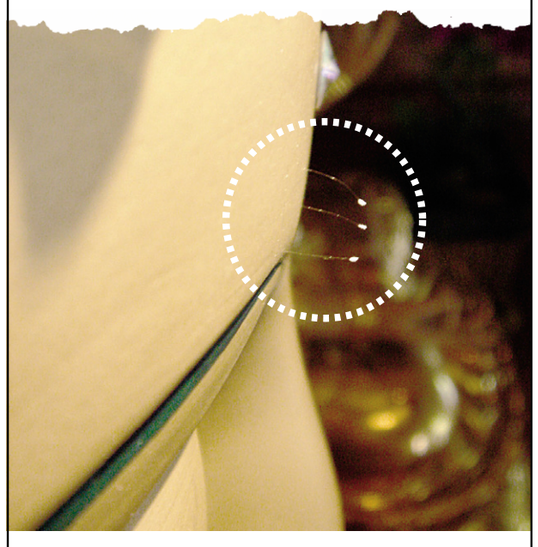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천년초는 기존의 건강식품과는 달랐다. 건강식품을 먹어온 아내는 가끔 거르거나 까먹기도 했지만 천년초가 다 떨어져갈 때 즈음이면 "이제껏 먹어봤던 건강식품 중에 단연 으뜸"이라며 "어서 양을 채워 놓으라"고 말했다.

천년초를 경험한 분들은 대다수가 성인병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천년초를 먹으면서 겪었던 사례들은 매우 신기했다.

천년초를 장복하고 있는 여덟 명은 보통의 증세가 비슷했다. 물론 몸이 안 좋은 경중은 좀 차이가 났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건강식품을 건강할 때 상복하는 분들이 어디 흔하던가? 병원과 약을 다 먹고 치료해보고 결국 답답하면 건강식품에도 손을 뻗게 마련이다.

일단 여덟 명의 장복인들은 평균나이가 60세가량이고 고혈압 증세가 2명, 당뇨가 2명, 관절염 1명과 디스크 1명 그리고 공통적으로 위장이 매우 안 좋고 심한 사람은 궤양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비를 달고 살아서 변비약을 상복하시는 사람이 1명이었다. 다양한 지병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장복 결과 경험한 공통적인 것은 △위장이 편해짐을 느끼고 △변비가 사라지고 △기운이 회복됐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장복한 8명 중 3명이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당뇨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고 부기가 빠지고 대장에 가스가 차던 것이 없어지고 등등 다양한 효과를 봤다. 천년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먹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이러한 통합적 개선, 특히 '기운 회복'과 '피부의 개선'은 항상성으로 신체 기능이 정상화 됐다는 것을 나타내며 삼(蔘)을 먹었을 때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영하 20도 이하와 한여름 40도 이상의 한반도 4계절 황토 속에 살고 있는 태삼(천년초)는 영약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02)780-0098

불상이 부처님인가요?
부처님 눈썹에서 당신만의
우담바라를 찾아 보세요!

원만 소원성취 기도도량
법 계 사
전남 순천시 석현동 599-1 ☎ 종무소 061)751-8188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이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종교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청암(靑巖)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5점이상 50% 할인)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불교행사 해드립니다
범음범패, 49재, 천도재, 회심곡, 법고춤, 바라나비춤
상담하시면 성심 성의껏 집전해 드립니다
010-8677-3786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전통 범패 배우면서 부전 하실 분 모십니다
(45세미만 / 마산)
016-428-666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신심으로 수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043)297-87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오래 계실 분, 강원도)
부전비구니, 비구스님모십니다
010-9219-7695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산사)
054)772-4133
011-876-5078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7574-1515

50대 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 소임 원합니다
010-5424-3820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비구승)
010-6267-3595

보시를 기다립니다
삼보 귀의 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을 포교하고자 포교원을 조성하였으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지장보살님(2.3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뜻깊은 대덕스님과 불자님께서 보시를 해주시면 큰공덕으로 기도 정진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10-6577-5955

세수 70세 이상 승납 30년 이상 노스님 무보시로 10분만 모십니다
방부는 현대식으로 일인 일실입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세수 50세이상 승납 10년 이상)
경북 문경시 농암면 쌍룡사
054)541-675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한국불교태고종 천인사
031)773-7746

60대 비구가 주석할 사암을 찾음
011-9429-578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 양평 용문)
010-7340-8765

노인행자 두분 모십니다
출가의 시기를 놓치신 남녀.
수행 실천비 月 30만원 (3개월후 부터)
오전에 절일, 오후에 농장관리,
아침저녁 예불, 하루2시간 공부.
증명사진, 가족사진, 이력서, 초본
문의 041)541-0533(寺)
아침 9시~오후 6시
(조계종 만불교 총무실장)

사주학 수강생 모집
"사주공부의 핵심은 음양오행과 육신이다"
초보에서 통변까지 책임지도
정통사주학 완성 저자 직강
•소수정예반 : 3명이내 또는 1:1 개인지도
종로3가역 1번출구 낙원상가 방면
김현산 역리원

정통사주학 완성 (수기본)
"사주학은 쉽게 배워서 쉽게 통변할 줄 알아야 한다"
이책으로 사주학 공부를 완성하세요.
•저자 : 김현산 •정가 : 25,000원
•구입처 : 김현산 역리원

011-9113-8545 / 02)741-8449

한옥 / 사찰 (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소생은 거창하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된 개인사업(물류유통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성실한 사람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서로 위하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불심이 돈독한 40대 중, 초반의 어질고 자비심 있는 보살님을 인생의 반려자로 모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010-9733-585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근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會主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秘 法 강 의 (최면학은 오직 유식)
초종파! 스님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면 별것 아니다.
"본 강의"와 因緣되어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 최면학, 빙의치유법, 전생오법, (참 쉽다) 천도재의식(특별비법)
2. 神病다스리는 법,(참 놀라운 귀 상혼질병의작용법, 관상학, 건강마주기(심령식), 氣치료
3. 전생업보격국법, 약손 만드는 법, 7일 速人비결법(특별) 등
강의시간 : 매월 2.4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하 법향사 內
※ "침" 특수활용비법! (한의학박사 특별강의)
*** 인연있는 비구, 비구니들이여 좋은인연 되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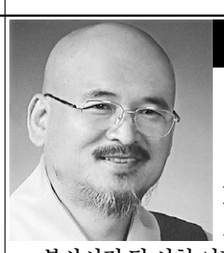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사주명리)수강생 모집
◆ 초급반 : 강의기간 : 9개월(주당 2시간) 수강료 : 20만원
강 사 : 금요반(이선종 선생), 18:30~20:30
토요반(정도형 선생), 11:00~13:00
6월중 개강
◆ 전 문 반 (통변) : 실제 상담기법 등을 체험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강의 기간 및 시간 : 3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18:30~2시간 수강료 : 월 20만
강의 내용 : 통변론과 용신론 심화과정, 삼대복신론 심화과정, 사주감정 비법 및 실제체험 강의, 적중률 높이는 기술 반복 체험학습수시 수강신청 가능
월간역학교육원 • 한국역학협회 02)2264-02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재설치승인 · 교환알림"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부산 051)908-868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혜(지계명)
- 승려번호 : 0108-10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4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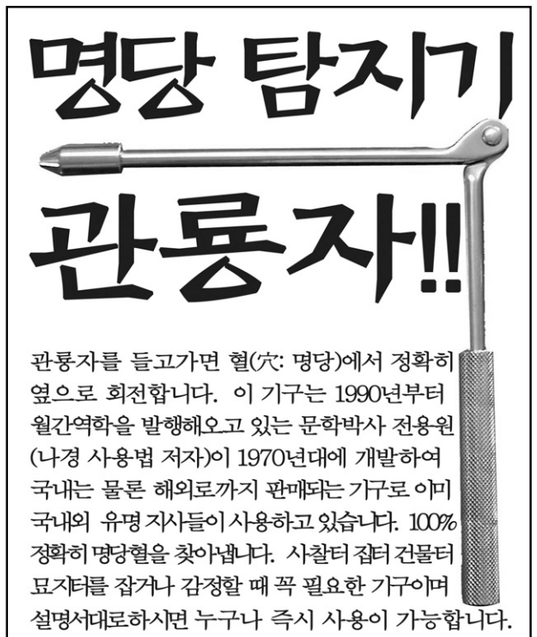
- 사찰명 : 무량사
- 주 소 : 전남 나주시 송촌동 413번지
- 주 지 : 혜인 (양덕오)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가격 15,000원

조상신은 어디에서 사는가?
낙태된 **태아신**은 어디에서 사는가?

제가 본 신의 세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세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신들의 세계가 이 땅에 함께하며, 사람들의 삶에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그런데 사람신, 즉 죽은 사람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살아서는 만물의 영장을 자처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 나락으로 떨어져 한낱 동식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도神道를 충실히 닦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의 말씀처럼
"엄마 뱃속에서의 열 달은 태어나서의 백 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백 년은 죽음 후의 천 년을 준비함"입니다.
……
죽어서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도가 없으니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
서문을 대신하며 … 저자 해광 하순천

(도서판매처)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서울)골드북닷컴
인천)대한서림 | 대전)대훈서적 | 부산)영광도서 | 광주)충장서림
청주)일선문고 | 포항)포항문고 | 진주)진주문고 | 전주)홍지서림 등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3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2억5천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1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가액 : 10억 급양도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급양도가 : 15억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19평
- 부지 : 700평
- 전세 : 3억

- 위치 : 강원 철원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50평
- 부지 : 600평(문중)
- 가액 : 5억

- 위치 : 충남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34평
- 부지 : 240평
- 가액 : 1억3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대사찰 안내

- 위치 : 도심에서 가까운 절
- 총대지 : 4,000평
- 법당 : 30평(목조), 지장전 : 30평(목조),
- 삼성각 : 20평(목조)
  요사채 : 60평, 공양간 : 약 45평
- 산세수려, 사계절 계곡물 철철
- 12m 도로접, 평지
- 약 30억 불사
- 가액 : 10억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기장
- 법당 25평
- 요사채 50평
- 부지 197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부산
- 법당 30평
- 요사 50평
- 부지 200평
- 가액 : 4억5천

- 위치 : 부산양산
- 법당 30평
- 요사 50평 2동
- 부지 200평, 600평
- 가액 : 7억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011-9402-9306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자락
- 면적 답 300평, 임야 200평
- 임시주거지 70평(콘테이너)
- 계곡물이 좋고 산세 수려한곳
  바다가보이고 저수지 옆
- 가액 : 평당 10만원

055)855-5950
018-622-986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밭 1,000평, 산 3,000평
  대지 9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2.5평
  요사채 60평
- 화장실 3평(외부1), 내부 2개
  주차장 200평
  스님 요사채 25평
- 가액 : 5억 (오셔서 보시고 가액 결정)

010-9219-769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2945-7704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현재 임도 삼림욕을 관광지로
  공사 중에 있는 곳
- 대지 800평 법당 25평,
  요사채 3채, 방4개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최고 적합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1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사찰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화창리
  (낭성-초정사이/청주서20분)
- 면적 : 1,700평(현재-나대지)
- 특징 : 남향,포장도접,관리지역,
  계곡접,경관수려.
- 기타 : 전원택지,기도원부지,
  투자,재테크 가능.
- 평당 : 15만원 / 양도 : 2억5천5백

010-2529-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산 입구
  (금정마을)
- 법당 15평, 요사채 방7개,
  총 100평, 밭 300평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금 900만원

010-9901-57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앞
- 4층 건물중 2층 실평수 40평
- 법당 20평, 방2개 욕실, 공양간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보증금 1,000만원 80만원
-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외 총 2,500만원

010-2665-239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 교통편리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아름다운 고장 경북 영양
- 입지: 田 925평은 지방도와
  청정계곡이 접한 국유림내에
  위치한 다목적 토지를
  평당 5만원에 급 안내

주인직 011-538-2211
054)682-88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부 경남
- 부지 800여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0평
  그 외 산신각 용왕당
- 가액 : 4억 5천. 융자가능함

010-3553-001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영등포구
  (지하철 5분거리)
- 3층 건물에 2층 40평, 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2)834-3360

도심(빌딩)속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모든시설 완벽
- 가액 : 1억 8천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시내
- 대지 : 57평, 시내 중심 큰길변
- 법당 18평 (벽돌조 단청, 옥상사용가)
- 선원요사 20평
  (벽돌조 심야 보일러)
- 시내 중심지로써 포교위치 최상
- 가액 : 답사후 절충.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스님 상정상 (급) 양도

010-7325-125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군포안양지역
- 평수 : 235평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전체 80평, 방4칸, 화장실2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1-685-674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5364-0038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 235평
- 임법당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 하실분
-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
  할 수 있음
- 가액 : 7,000만원

010-6357-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 인터체인지
  5분거리
- 법당 20평, 건물 약100평
  화장실 3개,방 4칸, 창고 2칸
  가든제조. 집기 일체 포함
- 몸만 들어오면 됨
- 가액 : 2억 3천. 임법당

010-9468-42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별장(토굴)안내

- 위치 :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2층 건물 1층 50평, 2층20평
- 총 70평 (1층 방 2, 화장실 2,
  대형거실1,주방1)
- 계곡산세 좋음, 사계절 물 흐름
  600m 앞 남한강 앉아서도 보임
- 심야보일러, 지하수 및 상수도 겸용
- 조경 좋음, 잔디 앞마당 텃밭
  포함 296평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736-356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3억(절충가능)

011-816-9104
011-815-910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과 경주 사이
- 대지 : 123평,
  사용면적 약 200여평
- 법당 20평, 요사책 40평
- 가액 : 2억

016-436-65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월세 50만원
  시설비 없음.
- 시설비 및 비품대는
  상의 후결정

010-8011-7444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
- 임대수입과 함께 안정된 사찰
- 지상4층, 지하1층
- 시내 요지 대지 130평
- 가액 : 18억

010-6811-335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 25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
  샤워장
- 삼존불 스님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 철학관가능

017-571-5599

별장 같은 토굴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건평 1층 33평,
  2층 23평, 황토방 有
- 라운드 형 황토목조
  기와지붕(신축)
- 주차 7대 황벽 석축 단장
- 가액 : 4억 3천만원

010-6438-356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수영 팔도 시장내 동사무소 옆)
- 주차장, 2층, 신설법당
  이동인구 밀집지역
- 평수 50평,방2개,화장실, 욕실, 큰 거실
  모든 시설일체 완비. 집기 일체 양도
- ※주지스님 소임 관계로 급 양도함
- 법사,철학,무속,스님관계없음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5만원(시설비 1,600만원)

010-7145-4835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가격절충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용암사)
- 대지면적 : 약 400평
  건물 : 법당13평(목조기와)
  요사채 : 신축건물(약30평) (평당300만원소요)
  토목 및 옹벽 6천만원소요
- 가액 : 1억3천 이나 1 억5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5천 확신)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불사 하려고 합니다
  신도 약400평 인데 현재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011-9329-424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토지 : 5,800평 전 : 5000여평
  대지 : 300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태백산과 소백산 청양산 줄기가 합치는
  회룡터로써 최고 명당자리 사찰 부처님
  사리탑 조성되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54)673-1859
010-2088-185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거제리
  검찰청 입구 삼거리
- 지하철 3분거리
- 2층 40평, 즉시법회가능
- 포교당 7년운영/포교당 최적지
- 보증금 1,500, 월 110만원
  시설비 차후 결정

010-7100-08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31)405-418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내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 4개, 주방 2, 거실1, 욕실1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월세 가능함
- 주인직접

011-792-896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상상력

“불교, 무한한 문화 상품·사업의 보고”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300여 청중 앞에서 열강하는 박원순 상임이사.

강 사 : 박원순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일 시 : 2009년 5월 22일
주 제 :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상상력
장 소 :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최 : 실천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길을 가다 신호등이 고장이 났을 때,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 중 신호등 고장신고를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 순간 고장신고를 하는 사람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다. 더 나아가 그는 직접 고장신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인권변호사로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운동의 선구자로 ‘아름다운재단’ 활동, ‘아름다운가게’ 설립 등 우리시대 조용한 변혁을 이끌어 온 박원순의 이름은 익숙하다.

박원순 상임이사와 함께 그의 참여정신과 시민운동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나눔과 희망의 비전

시대에는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1970년대 군사독재 시대에는 민주화와 민주주의 도입이, 1987년 이후에는 민주주의 생활화가 큰 과제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참여연대는 일종의 정당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안부터, 부패방지법과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쳤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게 됐으며, 나눔의 정착을 위해 헌 물건을 활용하는 ‘아름다운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5년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희망제작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절망적입니다. 사후에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극락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용한 변화의 중심, 비영리단체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기업, 민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버넌스의 통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행복도시락’으로 비영리사업을, 서울시가 영리추구인 ‘서울관광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민영화 또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MB정부는 비영리단체(NPO)를 사장시키고 소통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 정부는 130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농촌지역에 쏟아 부었습니다. 현재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잘 살게 됐습니까? 정부만 빚더미에 앉았을 뿐입니다.

정부의 관료주의로는 절대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 조직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농촌 정보화로 컴퓨터를 한 마을에 40대 씩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 농촌에서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어르신들은 3~5명뿐입니다. 컴퓨터 장사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어르신들을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원, 봉사자들이, 사회복지 또한 사회복지 활동가들이 중간에 존재해줘야 정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입니다. 지금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고령화 문제 등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현안 풀뿌리 힘으로

일본의 모든 기차역 인근에서 가장 큰 건물은 보통 ‘생활협동조합’ 소유 건물입니다. 일본은 지역 복지에 있어서 ‘생협’에 소속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복지를 담당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생활 물품을 만들어 직접 배달해 판매합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한 찾아가며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제의 장점은 인간적인 커뮤니티가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일 찾아가는 어르신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로 금전 지불 이외의 목욕과 장보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험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노인 복지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더욱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도로 건설을 반대해야 합니다. 작은 동네별로 배심원단을 만들어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협동 · 민관 합동사업이 사회 · 국민성 향상시켜
사회현안 해법 제시에 은퇴자 · 주부가 주체로 나서야 해

실례로 독일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미래위원회’를 두어 도시 개발을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70명의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배제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베를린은 녹색률 47%에 이르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베를린은 어디 가나 공원을 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로 평가 받습니다.

또한 런던 코인 스트리트(Coin Street)도 좋은 사례입니다. 코인 스트리트는 재개발 지구로 결정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인 경우입니다.

코인 주민들은 낡은 건물을 그대로 놔두며 새로운 건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구 개발을 주민들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와 생필품 가게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동 사업장을 거리에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코인 지역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코인 스트리트는 런던에서 관광 상품으로까지 개발돼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돌아보면 용산 참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로 나오는 이윤을 위한 대기업들의 강력한 추진, 그에 반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지역 재개발이 지역 주민의 힘으로 이뤄지고, 그 이윤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교는 무한한 문화상품의 보고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경제 2위의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에 이르기까지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견이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협동사업, 민과 관이 함께하는 사업, 이것이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던 그러한 사회와 국민성 향상 방향입니다.

인천에는 양조공장과 성냥공장 등 100년 이상의 근대화 건물을 수없이 보유한 배다리 마을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여기에 산업도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류의 기반이 되는 산업도로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한번 파괴되면 다시 살릴 수 없는 100년 이상의 근대건물 밀집촌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지난 100년 동안 서양을 따라가며 전통을 잃어 버렸습니다. 불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그것을 살린다면 문화적인 전통으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산업의 기초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교는 무한한 문화 상품의 보고입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정통과 역사와 이야기 등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큽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무한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텐플스테이만큼 좋은 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발우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사, 봉은사 등 도심지역 사찰에서 아침마다 직장인을 위한 죽 발우공양을 실시하고, 보시금을 자율로 받는다면 불교문화를 알리면서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과 접목해 불교는 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합니다. 불교가 가진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무한한 사업들을 만들고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대 재소자의 사회참여를 이끄는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기여에는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불교 또한 이러한 교도소 운영 등 포교의 다각화에 앞장 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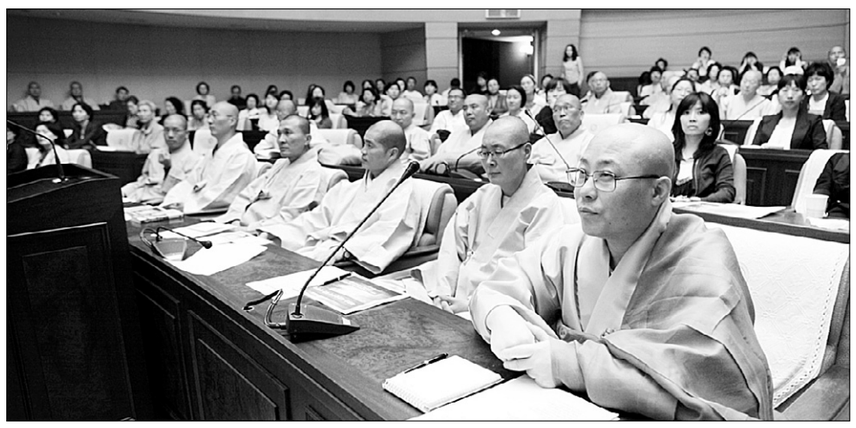
#인생은 50부터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현안에서 다양한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많은 국민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와 주부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사회 개선 사업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2의 삶을 사는 데 도울 수 있다면 희망제작소는 어떠한 역할이라도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한 할머니가 공문서를 받을 때 ‘나이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서가 올까?’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몇 십년동안 정부에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날아온 공문서를 쉽게 고쳐 다시 반송하고, 다시 지적하는 등 할머니의 ‘Plain English’ 캠페인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영국의 모든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등은 공문서를 기안한 후 이 할머니 자문을 거칩니다. 단체 또한 만들어져 직원이 40명에 이릅니다. 고용창출이 유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회참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럽에서는 비영리임에도 비영리단체가 유발하는 GDP 비중이 7%에 달합니다. 경제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비영리 단체들 또한 힘듭니다. 창의적인 힘으로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비영리단체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점 또한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시민운동의 비전을 경청하고 있다.

불자정보 734호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암자안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내 중심지 2-3층
● 각 70평씩 140평, 최고의 시설
● 보증금 1,500만원 월100만원
● 모든 시설 완벽, 답사후 결정
011-361-9870

포교당안내
● 위치: 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옆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탱화,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역학 보살님도 가능
010-8283-525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구 장대동 금호고속 부근
● 2층 건물 약 40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37만원 시설비 차후 결정
● 역학 보시는 스님 최적지
041)866-9320
010-8805-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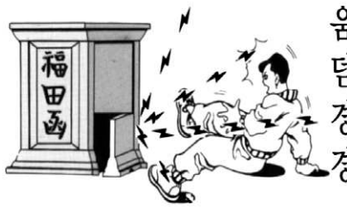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 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011-9402-9306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 은행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정종환약국 옆 건물 2층
● 2층 50평 법당, 방2개, 주방 별도
● 삼존불,신중,후불,약사여래 탱화,시설 일체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2만원 시설비 일체 : 2,000만원
011-862-8275
010-7100-0863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현사신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웃음보살 불등거사 <47>

구성 : 김흥인



털 한 줌을 놓고 다툰 어린 아이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두 아이가 강에 들어가 놀다가 물밑에서 털 한 줌을 얻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이것은 선인(仙人)의 수염이다."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이것은 큰 곰의 털이다." 서로 다투던 두 아이는 강가에 살고 있던 선인(仙人)에게 가서 의심나는 것을 판결해 달라고 했다. 선인은 곧 쌀과 깨를 입에 넣고 씹다가 손바닥에 뱉어 놓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은 공작의 똥과 같다." 이처럼 남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선인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 설법할 때에도 쓸 데 없는 것은 모두 설명하면서 바른 이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 선인이 묻는 것에는 대답하지 않고 깨를 씹어 뱉는 것과 같다. 근거 없는 빈말도 또한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회양 스님이 구금된 스님을 구하다 회양구승(懷讓救僧)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육조 대사의 제자인 회양 스님이 형산에 올라가 관음대에서 현지 스님이 형옥에 구금돼있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으며 많은 신도들을 교화하는 계기가 된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회양(懷讓, 677~744) 스님의 성은 두(杜)씨이며, 산시성 출신으로, 15세 때 후베이성 징저우(荊州)에 있는 옥천사(玉泉寺)의 홍경 율사를 따라 출가했으며, 조계산(曹溪山)에 들어가 6조 혜능 선사 밑에서 8년 동안 수도해 마침내 대오했다. 714년 후난성 남악(南岳)의 반야사(般若寺) 관음당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크게 교화를 펴며 독자적인 선풍을 떨쳤다고 해 이 법계를 남악하(南岳下)라고 한다. 같은 6조 문하인 청원행사(靑原行思)의 법계인 청원하(靑原下)와 더불어 교풍을 떨쳐 후세의 선종에는 이 두 법계만이 융성했다. <경덕전등록>에 의하면 제자 9인 중 마조도일(馬祖道一)만이 이 법통을 이어받아, 후일 임제종(臨濟宗)·위앙종 등의 종파로 발전했다. 또 그 후의 보화종(普化宗)·황벽종(黃檗宗)도 이 계통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육조대사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한 물건이라도 짝이 됐다고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닦고 증득할 수 있는가?' '닦고 증득할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호념하시는 경계다. 그대가 이와 같으니 나도 역시 이와 같다. 서쪽 천축의 반야다라는 그대의 발아래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두가 너의 마음속에 있으니 속히 말할 필요는 없다.' 이에 회양 스님은 활연히 계회해 일대사인연을 마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형산에 올라가 관음대에서 발길을 멈췄다. 이때 현지라는 스님이 있어 형옥에 구금돼 있는데 그는 머리를 들어 회양 스님의 구호를 염원하고 있었다. 회양 스님은 일찌감치 이를 알고 힘써서 그 스님을 고난에서 벗어났다. 그 스님은 말했다. '이 분은 구고구난관세음보살인데 이에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의 교화가 크게 행해진 것도 역시 이에 말미암은 결과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회양 스님은 법을 펼쳐 행사스님과 더불어 남종선의 양대 축을 이루었다.

<관련 문화재> 회양구승(懷讓救僧)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회양구승(懷讓救僧)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능소화

살색이 너무 짙으니
가까이 가면 물들겠다

돌아보지 마라
이미 담을 넘은 것이
아랫도리를 벗고 있으니
혼절한다 해도

네 탓도 아니지만
내 탓도 아니다

아
곱긴 곱다

–이무원/〈우리시〉 6월호



현대불교에서 야심차게 오픈한 불교 온라인 쇼핑몰 현불샵!!
www.hyunbulshop.com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실속있는 상품!!
현불샵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과 편리한 구성!! 다양한 이벤트!!
문의전화 02)2004-8215~6

1. 회원 가입 이벤트 [5월 14일 ~ 6월 14일 까지]
■ 경품안내 : 단돈 천원의 상품을 구입해도 경품이 팡팡팡!!! 온라인 쇼핑몰 hyunbulshop.com 오픈기념 적립금 지급 이외에도 상품을 구입 하시는 모든 회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OPEN일부터 한달간!!!)
· 1등(2명) : 북한 신비의 금강약돌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세트(108염주+단주+합장주) 판매가 245,000원
· 2등(5명) : 건강에 좋은 만행화 지압 슬리퍼 판매가 60,000원 / · 3등(10명) : 찜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허리팩 판매가 44,000원
· 4등(20명) : 우주탑 차걸이 판매가 8,000원
2. 적립금 이벤트 (회원으로만 가입해도!! 적립금이 팡팡팡!!)
3. 현불샵 삼행시 짓기 이벤트 순발력 있고 재치 넘치는 삼행시를 선정하여 반야심경 책갈피(북마크) 8개 1set를 총 20분께 드립니다.



기도정진용으로 최고! 건강에도최고! 선물로도 최고!
신비의 금강약돌
영험의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 규격 : 108염주 10mm
손목합장주 10mm
12단주 25mm
신비와영험의 금강염주세트
· 판 매 가 ~~245,000원~~
30%할인가 171,500원



고전체 장식도 반야심경을
책 갈피로 형상화 시킨 작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의 전체 뜻은 경명(經名) 그 자체이다.
인간 몸 자체가 환(幻)이요 공(空)이니 참 즐거운 경지인 지복에 이르는 "마음글" 또는 "만법의 근본 글"이라는 10자(字)에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즉설주왈" 18자에 600부 반야사상을 함축한 주경(呪經)이 심경(心經)이라는 점이다.
반야심경 책갈피 · 8개 1set
· 판 매 가 ~~24,000원~~
20%할인가 19,200원



· 소재 : 초극세사원단(무균)과 창 – 발포 우레탄 동(발냄새,무좀방지효과),바이오 실리콘(지압효과)
- 발볼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 황동 8개 첨가로 발냄새와 무좀방지 효과에 탁월합니다.
· 크기 : 230-280mm (10mm단위)
· 사이즈를 신청하실때 메모에 남겨 주시면 맞추어 보내드립니다
지압 건강 슬리퍼
· 판 매 가 ~~60,000원~~
30%할인가 42,500원



불가 최초 관불 관욕 전용의
물에 타서 쓰는 향탕수 관불수향
- 관욕이 끝난 후에는 향탕수를 버리지 마시고 제주들의 손을 씻게 하시면 좋습니다.
- 관불수향은 그 재료 자체가 피부보호 기능이 뛰어난 전단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규 격 : 30mm×110mm · 용 량 : 20ml
· 주 재료 : 침향, 전단, 백단, 자단, 천단 등
관 불 수 향
· 판 매 가 ~~120,000원~~
30%할인가 84,500원



최소 20번의 공정을 수작업으로 거쳐
정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전통오동나무뒤주
· 특징
- 오동나무 원목의 연한부분을 쇠솔로 긁어내고 나이테의 경질부분만 남게 한 후 여러번의 사포질+칠+말림을 반복하여 만들어 충격에 마모가 적고 튼튼하며 표면에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 통풍이 잘되고 습기에 강하여 쌀을 보관하기 최적입니다.
- 쌀통갈지않고 멋있는 고가구여서 인테리어 효과에 최고입니다.



전통오동나무뒤주 20kg
· 판 매 가 ~~110,000원~~
12%할인가 100,300원



한마음으로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하는데...

문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인간 몸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몸을 타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고 참으면서 견뎌왔는지를. 여러분은 살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볼 여지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더러 좀 쉬시라고 그러고 어디 이런저런 데도 가 보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외려 그것이 더 쉬는 게 아닙니다, 고달픈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답답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한번 이렇게 검토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거쳐 옵니다. 그러고선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피고 나를 다시 한 번 봅니다. 이럴 때, 그렇게 구경을 하고 한 번 돌아오는 그 한순간의 생각에 나는 벌써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고 또 실감나지 않는 일이 돼서 모르시겠지마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도 돌에 있는 느끼, 흙의 느끼 그런 것만 걷어 먹으면서 살고 남하고 싸움하기 싫어하고, 또 연쇄적으로 서로 잡아먹어 가면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걸 싫어하는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돌 틈에 가서 살면서 남을 피해서 그저 그런 거라도 걷어 먹고 살다가, 천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된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 년을 지내고 난 뒤에야 바로 인생이라는 한 꺼풀을 쓰고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말고도 말입니다.

그렇게 천 년을 견디면서 남하고 싸움하지 않고,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남을 해롭게 안 하고 그렇게 했건만 인간으로 꺼풀을 쓰고 나온 그 인간의 모습이 어땠던가? 나무의 수많은 이파리들이 가을이 오면 그저 바들바들 떨면서 단풍이 져서 어디로 흔적 없이 하나하나 날아 떨어지는 거와 같은 인생살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물들에 관한 건입니다. 동물들도 또, 남들하고 싸움하기 싫어서 사람들 인적이 아주 없는 그런 곳에, 살 수도 없고 추운 기도 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눈을 헤쳐 가면서 그저 풀뿌리만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또는 동물들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데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위에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래서는 추기가 오고 먹을 것은 별로 없고, 또 어느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산골짜기의 물이 흐르는 데서 일 년에 한 번도 얻어먹기 어려운 생물이 나오기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데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라면 기독교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그 뜻을 말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산골짜기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물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요행히 하나 얻어서 먹고, 일 년에 몇 번 얻어먹기도 어려웠고, 그렇게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면서 또 남하고 어울리지 않고 외롭게 이렇게 살면서도 천 년을 견뎌야 사람의 꺼풀을 쓰고 또 이 들에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사람의 꺼풀을 썼는데, 그 사람의 꺼풀이 한갖 나무 이파리와 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모두를 아신다면 목을 놓고 앉아서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껄껄 대고 웃어도 시원치 않고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들이 수없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또 어우러졌습니다. 인간의 한 이파리로 태어나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 나무에 모두 있다가, 그저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면 울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이파리는 떨어지면서 간다는 얘기도 없고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떠나갑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러나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아직 붙어 있으니까 '너는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서 친지처럼, 형제처럼, 부모처럼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그 나무 이파리를 보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렇게 해서 바람에 날리거든요. 그런데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은 그래도 생명이 소중한 거라, 그 몸 하나하나를 아주 허탕 내버리지 않고 그 땅에 도로 거름이 돼 줍니다. 낙엽이 수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히는 것은 인간의 거름이 돼 주려고 밟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수없는 나날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워 왔고, 알아 왔고, 진화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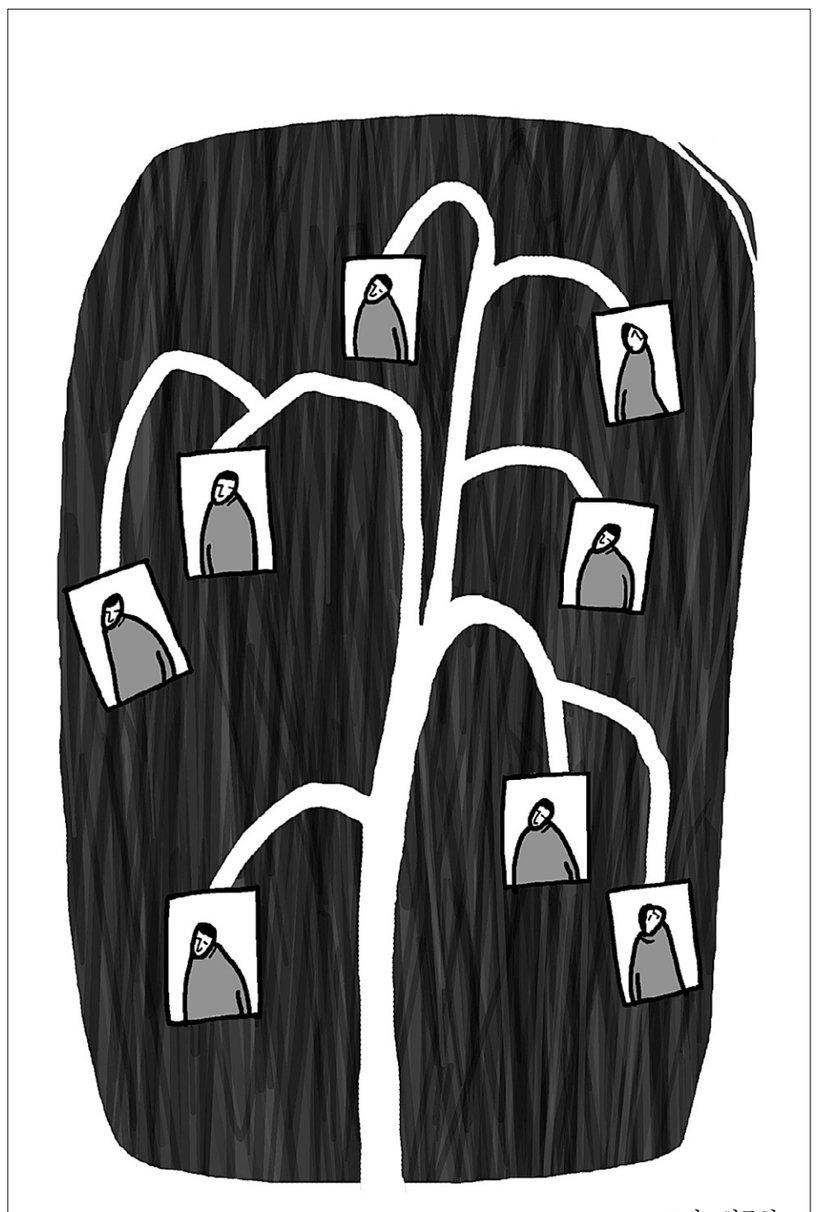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예전에는 나무 밑을 걸으면서도 혼자 걷기 좋아하고, 비 맞고 걷기 좋아하고, 눈 맞고 걷기 좋아하고, 누가 있는 것보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혼자 걸음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나뭇잎 하나하나처럼, 길을 가다가도 나뭇잎이 떨어지면 '허, 또 하나 떨어졌군.'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이렇게 한번 중얼중얼거리고 갑니다. '임이시여, 임이시여. 당신은, 나는 간단 말 없이 가지마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밑에 떨어져서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손을 한데 모으고 거름이 돼 주렵니다. 당신이 추우면 추기를 면해 드리기 위해서 덮어 주렵니다. 봄이 되어 따뜻하면 나는 당신의 거름이 진짜 되렵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에도 한 이파리에 지나지 않게 한 인생이 뜬구름처럼 그냥 그냥 훌쩍훌쩍, 훌쩍훌쩍 가 버립니다. 그렇게 바람과 구름같이 스쳐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는 그렇게 스쳐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스쳐 가면 스쳐 가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또 옮겨가고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 사람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겹겹이 겹쳐진 인생의 그 생로를 슬프게 아프게 거쳐 오면서도 그걸 이겨 나가고, 그 비수같이 살을 에어 내는 바람도 우리는 마다 않고 이렇게 겪어 나와서, 오늘날에 인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에 금이 모이듯이, 넝마전에 넝마가 모이듯이 우리는 예전에도 같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에이는 그 아픔을 서로 견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 벗기 전에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 차원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여야

문 오계의 첫번째가 불살생계입니다마는 저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죽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평생 어부로서 먹고살아서 다른 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다 보니 항상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답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공생 공심 공체 또는 공용 공식 한다고요. 그건 왜냐 하면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도 다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하고 바로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하나 가지고도 지구와 같이 더불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생물에서

☞26면으로 계속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음식.맞는과일. 맞는차를 알고 먹어야내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어요!

내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넘게 얼굴생김새.목소리.체형.성격을 본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유전적인병명.현재앓고있는병등을 만나는대로 알수있고 체질한약차로 병을고치는분을 만나로 오세요.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지는 행운이 열립니다.지금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큰변화를 얻을수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팔공범음범패 학인모집

팔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는 팔공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 있는 출가수행 승려와 재가 불자님들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팔공범패란 : 대구 팔공산 이남의 영남 지방에 퍼진 이른바 팔공산 소리이다.

◆ 자 격 : 승려, 범패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 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 의식
1.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2.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오공양, 극락무, 살풀이
(49재 및 천도재 의식을 중심으로 강의 합니다)
◆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 교육장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산 18번지 금륜사
◆ 문 의 : 054)336-5255

팔공범음범패교육원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buddhanews.com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5면에서 계속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라는 것은 불(佛)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불살생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면 꼭 내가 죽는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남을 해하면 내가 해해진다. 이게 질서정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공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과 의식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의식이, 생명이 어째서 내가 아니겠습니까. 다 나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물 한 컵을 먹고 빵 하나를 먹어도 같이 먹는 것이고 잠을 자도 같이 자는 것이고 또 움죽거리는 것도 같이 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체고요. 그리고 공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이나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럴 땐 항상 관하고 하십시오. 관하고 하시게 되면 그 살은 약이 되고 그 혼은, 즉 말하자면 환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진짜 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하고 하십시오.

동생이 툭하면 손을 벌려요

문 스님, 제가 맏딸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각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연인지 살림이 어려워지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툭하면 제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몇 번은 그냥 도와줬는데 너무 제게만 의지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합니다. 동생이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도와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답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과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을 착잡하게, 또는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습만 바꿀 뿐이지,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한테 얻으러 다니지 않고, 영원히 남한테 짓밟히지 않고, 영원히 담 밑에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한테 짓밟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바로 올바로 진실하게, 남을 주더라도 무주상 보시로서 주어야, 내가 준다는 상(相)을 두지 않고 주어야 합니다. 상을 두지 않는 그 물건이 바로 나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한 통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와서 설법을 한 서너 번 들었답니다. 근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맏이로서 동생 일곱을 다 키웠답니다. 밥장사를 하고 물 장사를 해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키워 놓은 동생들이 언니는 그 고생을 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했건만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네들을 공부시킨 걸 모르고, 그것이 피 나오는 핏방울인 줄 모르고 자기네들은 아무렇게나 구경 다닐 것 다 다니고 없으면 손을 벌린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그렇게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공부해서 짝들 만나서 잘사는데도 때에 따라선 조금만 부족하면 와서 막 압박을 하고, 언니는 그렇게 벌어서 쓰면서 왜 주지 않느냐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로 그 뜻을 알고 나간다면 좋겠는데….' 하고 아주 괴로워했답니다. 그런데 내 설법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얘, 쟤가 쓰는 것이 바로 부처가 쓰는 거고, 저 애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내가 써 보자.' 하고서 자기도 없는데,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빚을 져 가면서 사는데도 '이것도 시주다.' 하고선 집어 줬더랍니다. 주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저 조그마한 거라도 또 뭐가 팔려서 고걸 메워 나갔답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넓게, 부드럽게, 사랑할 수 있고 둘로 보지 않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그 불쌍한 동생들을 키워 왔건만 오늘날에 보니까는 내 동생이 언제 적의 내 동생도 아니고 내 동생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남들이 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쓸 때 쓰는 것이지 그렇게도 내가 안 써야만 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타이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건만 왜 내가 그렇게 내 속을 썩여 가면서 그렇게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싸움 안 하렵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더군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주어서 쓰는 것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나 공자, 노자도 말씀하셨듯이 얻으러 온 사람도 주지 않을 사람은 주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건 나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는, 남한테 기대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천만 냥을 보태 주어도 그건 온데간데가 없고, 오히려 반성하는 기간이 늦어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지 않는 것도 덕이 되고 공덕이 되고, 주는 것도 공덕이 되고, 모든 것이 공덕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점의 마음 여기에, 이 중심에 바로 부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에 우리가, 만법의 만 부처가, 만 생활이 다 이 한 점의 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이 한 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게 살펴서, 오관을 잘 살펴서, 내 한 점의 마음을 알아야 오관으로서 모든 걸 해 나가는데 정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바로 진실을 안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진실하고 나부터 알아야 모든 살림살이가 적당하고 소소영영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돼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 뒷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내가 나기 이전을 알아야 내가 전에 살던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과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모습만 바꿀 뿐이지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도 있었고 고구려 시대도 있었어요. 몽고가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 또는 그 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되기까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인연이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겠습니까. 이렇게 인연이 닿은 것은 바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닿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가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연에 관한 것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도 진짜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거름인 줄을 알고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생겨났는지요

문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설을 주장합니다만 이 불교에서는 인연법에 의한 진화설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연법에 따른다면 어떻게 이 생명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거는 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암흑이라고 합시다. 암흑! 암흑에도 다 각각 제각기 놀았을 거다 이겁니다. 바람도 흙도 모두 뭉쳐서 돌아가질 않고 제각기 돌아갔다 이 소립니다. 그럼 제각기 흩어져서 돌아간다면 그냥 암흑이죠.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 흙도 생명이 있는 거고 물도 생명이 있는 거고 모두가, 바람도 생명이 있는 거고 이 모두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한데 합치니까 온기가 생기고 그 온기가 바로 불이니까, 암흑을 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암흑이 없어지고 광명시대가 오게 되는 것은 생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라는 그 생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생겼는데, 공룡시대라든가 무슨 시대, 시대가 가고 인간 시대가 맨 나중에 닥쳐왔기 때문에 이 인간은 맨 나중에 났다 합니다. 우리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쫓고 쫓기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이 그로부터 쭉 형성시켜 가면서, 진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을 자기가 믿지를 않고, 자기 껍데기를 자기라고 하면서, 또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 거라고 하면서 온통 야단법석이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즉 물의 인연, 흙의 인연, 바람의 인연, 이 인연이 한데 합쳐서, 즉 말하자면 흙과 물과 이렇게 한데 어울리면서 바람이 불어서 뭉치고 뭉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온기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이래서 광명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다면 그게 인연이죠, 다. 우리가 이 꽃도 봐 줄 인연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꽃입니까? 물의 인연, 이 태양의 인연, 우리가 봐 주는 인연, 사 주는 인연 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인연들 아닙니까? 인연들로 인해서 이 꽃이 피고 아주 예쁘다고 이렇게 하지,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장의 인연, 직원의 인연, 그런 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인연 또는 생도의 인연, 이런 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나라의 발전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인연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성 원리로서 그건 필연적으로 된 법칙이며 이 인연들이 없다면 발전을 못합니다. 광명을 이룰 수도 없고 창조도 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들의 마음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문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에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라는 사람이 동물들과 마음으로 교감하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찮게 여겼던 게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정말 짐승들의 마음도 우리 인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 모든 생명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똑같겠지요?

답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미의 삶이나 어떠한 짐승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들이나 뭐 그런 생명들과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걸 다 얘기를 하려면 아주 얘기거리가 많죠. 우리가 참, 이렇게 알아서 음파를 통해서 같이 한마음으로서 동일하게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맛을 본다면, 기쁜 일도 있지만 너무나 슬픈 일도 많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픈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죠. 짐승들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또 저런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서 사는 동물들도 그렇고, 역시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물속에서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무정물이라든가 식물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돼 있고, 동물들도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모든, 돌의 생명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물건이라면 생명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인간의 그 살림살이와 그 도리가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모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나 소나 그런 짐승들도 끌려가면 새끼들은 벌써 알고 그냥 우는 겁니다. 또 자식이 끌려가면 어미가 울고요. 야, 이건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이 천 조각 만 조각 나죠. 어떠한 동물이나 식물들이라도 춥지 않은 게 어디 있으며, 마음이 어찌 없으며,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딴 데 쳐다볼 여지가 없이 살아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생각을 안 해 봐서 모르시는 거뿐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살림살이의 그 아픔이나 똑같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둘이 아니죠. 부처님의 몸도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저 미생물, 저 물에서 노는 고기, 들에서 노는 짐승, 허공에 날아다니는 새, 질척한 데서 사는 생명들, 이런 것도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면 지렁이 하나도 스스로서 자기가 살면서 진화를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진화를 하고 형성되고 진화하고, 형성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뜻을 자꾸자꾸 일깨워 자기를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모두 어느 거 하나 없이 다 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깨우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길뿐입니다.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 범패 - 거불, 복청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등
•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게, 다게 등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MBC BTN 불교 TV YTN 광고방영중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본사에 수의를 보관해 놓은 회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보관된 수의를 보내드립니다.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올해 윤년을 맞이해서 보성삼베섬유(주)는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를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수의를 장만해두시면 무병장수하고 가내두루 평안하며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수호천사특삼베	~~398만원~~	→ 27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사후지불 확정금액)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수호천사 회원자동가입이 되며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 장례서비스는 기존의 선불제 상조가 아닌 10년 후에도 위 금액으로 장례비 후불제 서비스 입니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구입상담문의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1544-6609

보성삼베섬유는 선각종과 함께 합니다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